



9월 미주 PICK 하나

**9월의 계절성주의 필요하지만, 미국주식 선호유지**



HANA 미국주식 MONTHLY

2026.9.2

선진국기업분석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선진국기업분석 김재임 jamie@hanafn.com

미국/선진국기업분석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 9월 추천 미국주식 &amp; ETF

## 9월 추천 ETF 및 종목

|     | 구분     | 종목명                                          | Ticker   | 시가총액<br>(십억 달러) | 설명 및 투자포인트                                                                                                                                                                   |
|-----|--------|----------------------------------------------|----------|-----------------|------------------------------------------------------------------------------------------------------------------------------------------------------------------------------|
| ETF | 미국 기술주 | iShares U.S. Technology ETF                  | IYW      | 2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대형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ETF.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li> <li>개별 비중이 4.5%를 넘는 대형 종목 합친 비중 45% 이하로 제한</li> </ul>                                     |
|     | 한국 방산주 | PLUS Korea Defense Industry Index ETF        | KDEF     | 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방산 대표기업 20개에 집중 투자하는 ETF. 70%는 시가총액 비중, 나머지 방산 관련성 점수</li> <li>글로벌 국방비 증가와 한국산 무기 수요 확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ETF</li> </ul>                 |
|     | 미국 인프라 |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 PAVE     | 1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li> <li>MLP, REIT, BDC 등 부동산, 인프라 보유 회사보다 실제 인프라를 만들고 공급하는 산업재 기업 중심</li> </ul> |
| 주식  | 사이버보안  | Palo Alto Networks, Inc.                     | PANW     | 31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에이전트 가동 가속화는 트래픽 폭증으로 이어지며 네트워크 보안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li> <li>사이버악(아이덴티티 보안), 크로노스피어(모니터링) 인수 이후 예상보다 빠른 통합 시너지 기대</li> </ul>             |
|     |        | CrowdStrike Holdings, Inc.                   | CRWD     | 23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Y27년 순신규 ARR 가이던스 첫 제시후 2개 분기만에 11.5ppt 상향조정, 하반기에 추가 상향 전망</li> <li>여러 제품을 유연하게 채택할 수 있는 Flex 구독 모델이 통합 사업자로서의 성장 가속화 견인</li> </ul> |
|     | 빅테크    | NVIDIA Corporation                           | NVDA     | 5,3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반기 배라루빈 양산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 FY 2028부터 가격인상 효과</li> <li>견조한 AI 수요로 투자 확대될 경우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역할 중대될 것</li> </ul>                           |
|     |        | Alphabet Inc.                                | GOOGL    | 4,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월 1일부터 AI MAX의 강제 전환: 검색광고 효율을 높이고, 광고주 지출에 영향</li> <li>하반기 내 TPU 8t / TPU 8i 상용화 가능성</li> </ul>                                     |
|     | 방위산업   | Rtx Corp.                                    | RTX      | 28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 국방비 확대 수혜: 미사일 보충 수요, 골든돔 등</li> <li>전 세계 민항기 생산 개선 긍정적: GTF 엔진 출하 증가 및 MRO 매출 증대</li> </ul>                                     |
|     | 전력기기   | Eaton Corporation, PLC.                      | ETN      | 15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 부문 수요는 데이터센터 뿐 아니라 상업/기관, 유틸리티, 산업 수요가 모두 견고</li> <li>DC 차단기와 냉각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800V DC 통합 솔루션 패키지 판매에 유리</li> </ul>                |
|     |        | Vertiv Holdings, Co.                         | VRT      | 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800V DC 로드맵에 맞춰 2026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출시 예정.</li> <li>중앙집중식 정류기, DC 버스웨이, 랙 단위 DC-DC 변환기를 포함. 과도기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li> </ul>     |
|     | 자동차    | 화낙                                           | 6954(JP) | 3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7월부터 엔비디아 연합은 일본 국가 차원의 코스모스 연합 참여로 이어져</li> <li>FA 주문은 4QFY25부터 회복 시작, 중국에서 데이터센터와 AI 서버용 반도체부품이 수요를 견인</li> </ul>             |
|     | 전력공급   | E-ROCK                                       | EROC     | 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가스 기반 모듈형 발전설비 활용. 신속한 온사이트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 전원 인프라 기업</li> <li>앤트로픽 470MW 규모 포함 약 17억 달러 규모 확보. 생산설비는 2027~2028년 초까지 완판된 상황</li> </ul>  |
|     |        | Cipher Digital                               | CIFR     | 6.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의 대규모 전력과 부지 활용. 전력 확보된 데이터센터 용량 임대 기업</li> <li>최소한 전력 접근권 확보 기업: 데이터센터의 Grid 연결 지연 길어질수록 기존 전력 접근권 가치 상승</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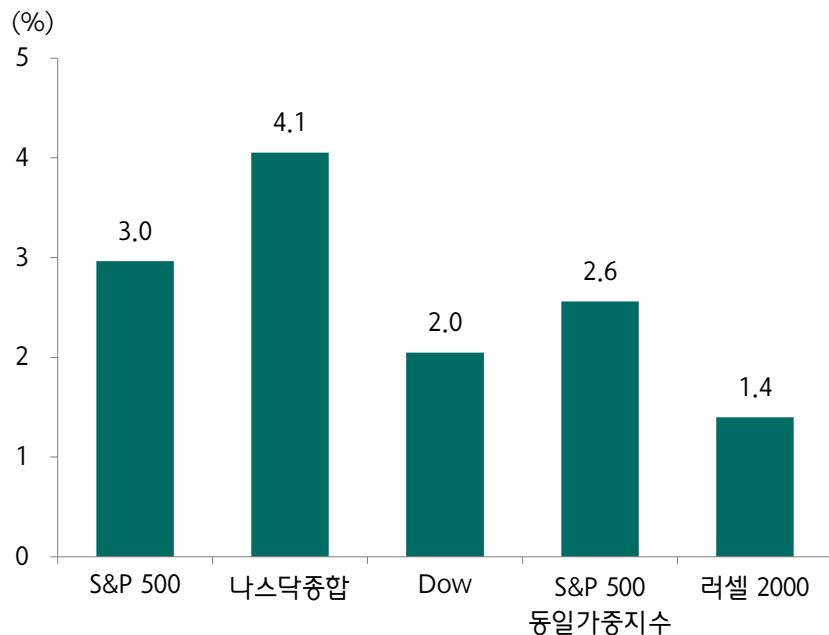
## Summary

- 8월 미국증시 Review: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는 S&P 500
  - ✓ 중동전쟁과 높은 장기물 금리가 계속되고 있으나, 양호한 실적 덕분에 미국증시는 역사적 고점 경신하는 등 양호한 흐름 유지
  - ✓ 호실적을 발표한 나스닥과 M7, 성장주 중심의 상승: 높은 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익성장 발표 덕분
  - ✓ 8월 상대수익률 열위지만 非-M7과 가치주의 양호한 수익률은 S&P 500 기업 전반의 양호한 실적 시사
- 9월 미국증시 Preview:
  - ✓ 24년 양호한 증시에도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은 유권자의 체감 경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나 모기지 금리 등의 관리 중요
  - ✓ 높은 금리 부담이지만 기업이익 증가가 더 강하다는 점에서 주식 선호도 계속될 여지 有
  - ✓ 중간선거 전 3개월 S&P 500은 9월에 부진. 선거 후 6개월은 양호한 흐름: 역사적 패턴을 감안하면 9월 변동성은 매수 기회
- 9월의 산업별 아이디어
  - ✓ 미국 지역사회의 데이터센터 반대: 엔비디아-AI 인프라 금융,
  - ✓ 산업데이터에서 찾는 아이디어: RTX-국방비 확대와 민항기 수요 회복, HWM-민항기 판매 회복과 AI 가스터빈 블레이드 수요
  - ✓ 사이버보안: AI 가동을 위해서는 보안 강화가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며 기업의 IT 지출에서 보안 비중 뚜렷하게 상승
  - ✓ 전력기기: 온사이트 도입 논리는 납기에서 지역사회의 수용성으로 확대, 국가 안보를 근거로 국방, 통신, 인프라까지 공급망 재편
  - ✓ 9월의 추천 종목 및 ETF
  - ✓ ETF: iShares U.S. Technology ETF(IYW), PLUS Korea Defense Industry Index ETF (KDEF),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PAVE)
  - ✓ 미국주식: 사이버보안(PANW, CRWD), 빅테크(NVDA, GOOGL), 우주항공&방산(RTX), 전력기기(ETN, VRT, 6954), 전력공급(EROC, CIFR)

## 중동, 금리 등 불안 속 8월 미국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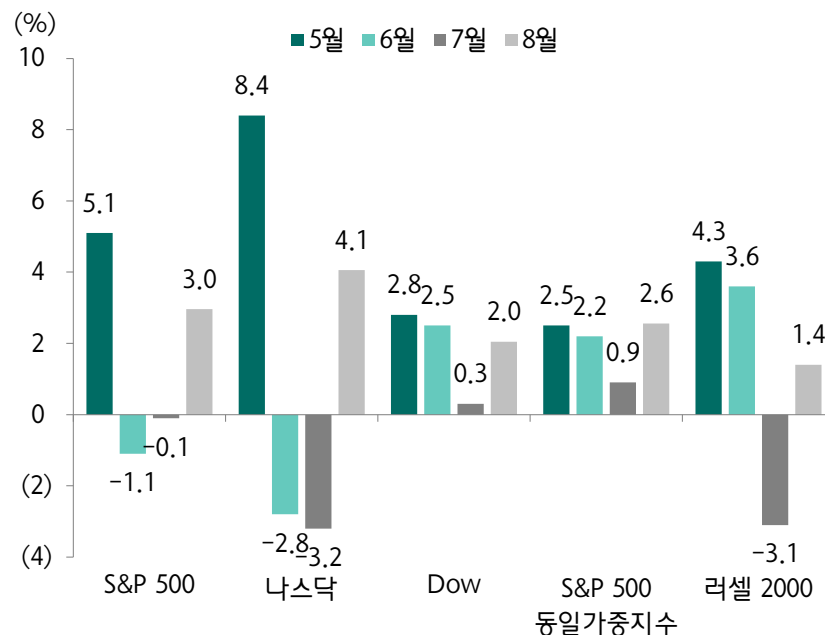
-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유가,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역사적 고점 경신 중
- 6, 7월 거친 변동성 보였던 나스닥에 저가매수세 유입. 다우지수는 꾸준한 상승세
- 우리가 8월 주장했던 것처럼 2분기 실적발표 후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양상

(7/31~8/28) 8월 주요지수 수익률



자료: Factset, 하나증권

5~8월 주요 지수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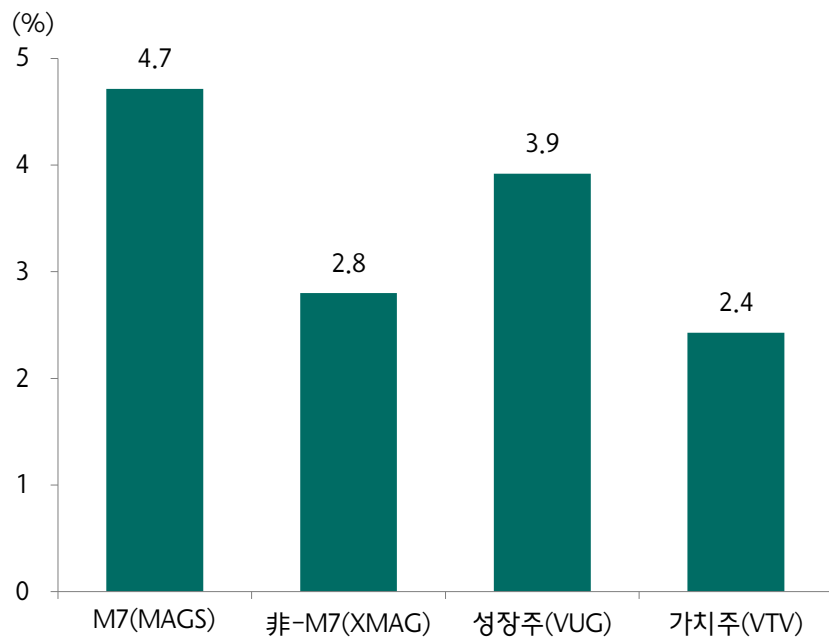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M7과 성장주의 상대 우위: 높은 금리 환경을 이익성장으로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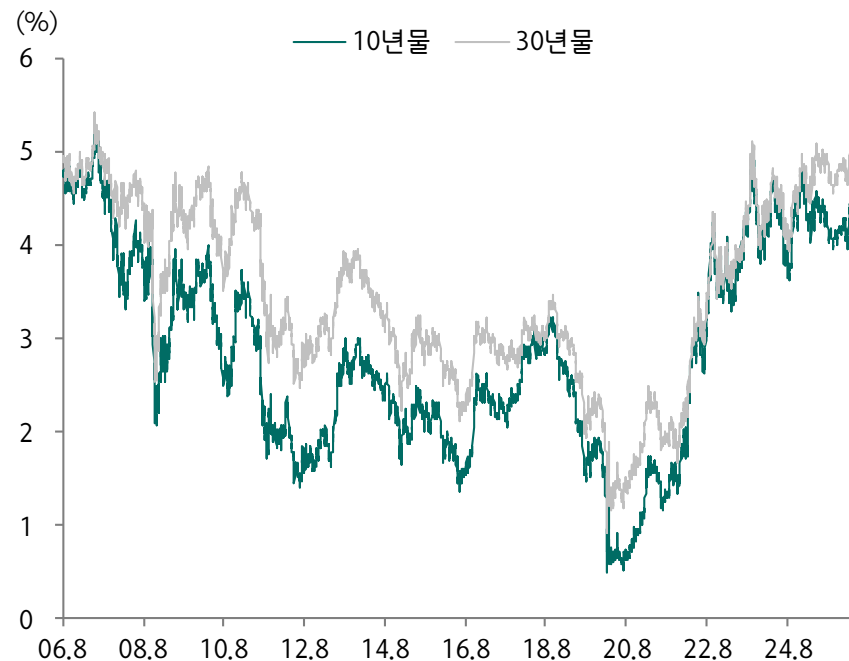
- 8월 시장참여자들은 높은 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M7과 성장주를 선호
- 실적 발표를 통해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보다 강한 이익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
- 상대수익률은 열위지만 非-M7과 가치주의 수익률도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S&P 500 전반의 실적이 양호했음을 시사

### 8월 미국 스타일별 수익률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미국채 장기물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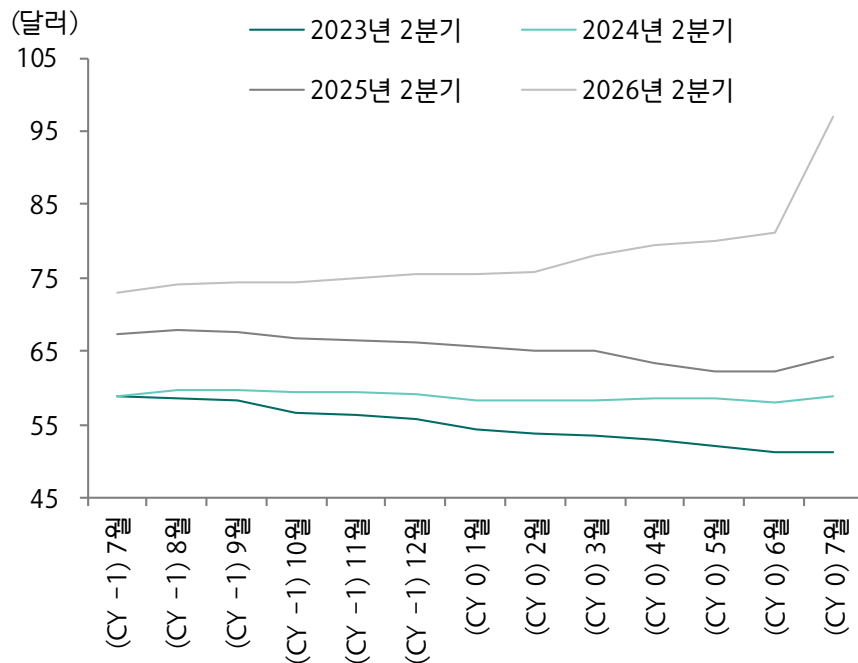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높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견조했던 2분기 기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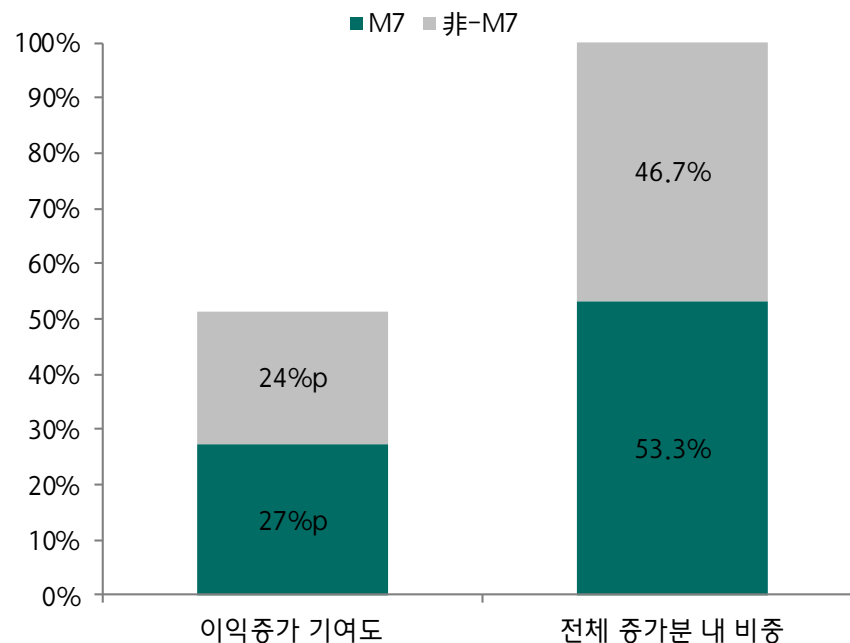
- 이례적으로 S&P 500의 2026년 2분기 EPS 컨센서스는 상향 추세였으나, 예상보다 더 강한 실적을 미국 기업들이 발표
- S&P 500 503개 중 471개가 실적 발표: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은 85% vs. 5년 평균 Beat Rate 78% → 매우 강한 실적
- S&P 500 순이익 증가율 51.4% 중 M7은 27.4%p(53.3%), 非-M7은 24%p(46.7%) 기여: 미국 기업 전반이 좋았음을 시사

2023~2026년 2분기 S&P 500 EPS 컨센서스 변화



자료: Factset, 하나증권

2분기 S&P 500 순이익 증가분에 대한 M7과 非-M7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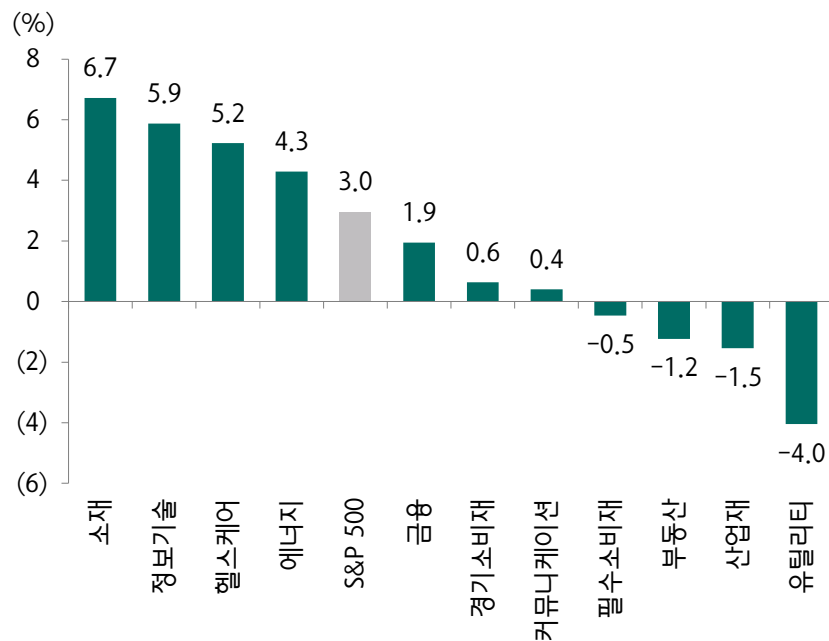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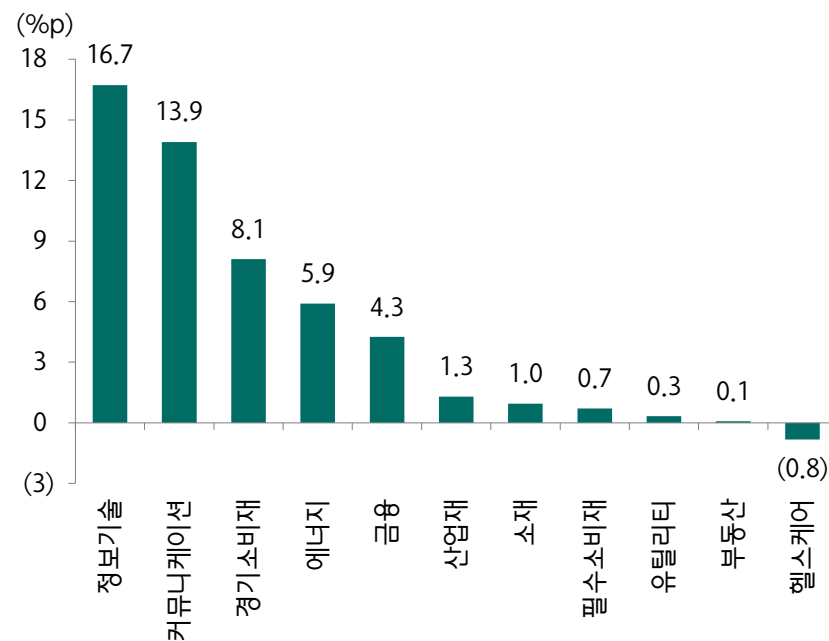
- 8월 S&P 500보다 수익률이 양호했던 섹터는 소재, 정보기술, 헬스케어, 에너지
- 소재와 에너지 강세는 매크로 영향 컸을 것으로 판단: 달러 약세로 인한 금가격 상승과 유가 상승
- 헬스케어는 모더나의 암백신 모멘텀이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를 개선했을 것
- 실적과 연동된 성과는 정보기술 섹터가 가장 잘 반영: 8월 S&P 500의 이익에 가장 높은 기여

8월 섹터별 수익률



자료: Factset, 하나증권

8월 섹터별 이익증가 기여도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낸 미국 정부

- 우리는 8월 Monthly를 통해 유동성 개선을 주장: 11월 중간선거에서 양호한 증시는 현 미국 정부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했기 때문
- 미국 재무부는 9월 10일부터 바이백을 시작해서 11월 4일까지 진행 계획이라고 발표
- 9월 11일 미국은 25주년 911테러 행사가 있을 예정이며, 11월 3일 중간선거 실시: 정치/정책적으로 금융 시장 안정의 중요성 高
-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상승을 정책 당위성과 경제 성과의 근거로 활용해왔다는 점 감안하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장 안정 중요

### 미 재무부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 추이

| 구분                 | 2024년 8월 분기 | 2025년 8월 분기 | 2026년 8월 기존 계획 | 2026년 9/9 이후 변경 |
|--------------------|-------------|-------------|----------------|-----------------|
| 10~20년물 회당 한도      | \$ 2bn      | \$ 2bn      | \$ 2bn         | \$ 4bn 이상       |
| 10~20년물 횟수         | 2회          | 4회          | 5회             | 5회              |
| 20~30년물 회당 한도      | \$ 2bn      | \$ 2bn      | \$ 2bn         | \$ 4bn 이상       |
| 20~30년물 횟수         | 2회          | 4회          | 4회             | 4회              |
| 장기물 총 Operation    | 4회          | 8회          | 9회             | 9회              |
| 분기 최대 바이백 Capacity | \$ 8bn      | \$ 16bn     | \$ 18bn        | \$ 32bn 이상      |
| 핵심 변화              | 프로그램 확대     | 빈도 2배       | 추가 빈도 확대       | 회당 규모 2배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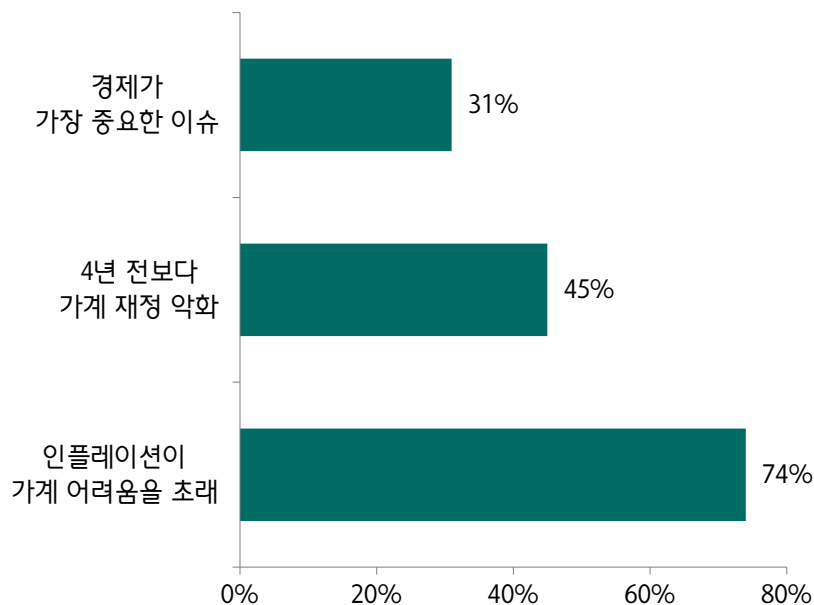
자료: 미 재무부, 하나증권



## 2024년의 교훈: 미국채 장기물 하락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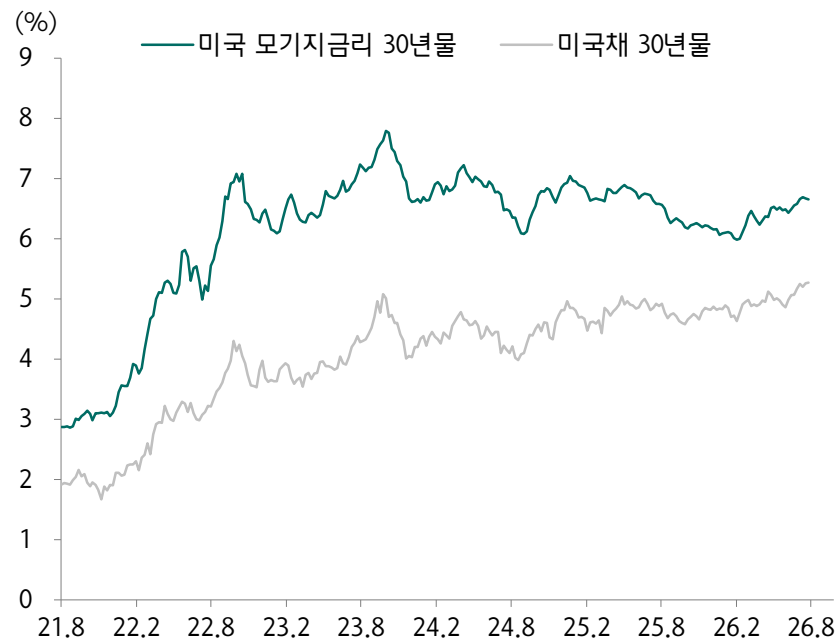
- 양호한 증시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인들의 낮은 체감 경기와 가계 재정 부담
- 2024년 미 대선 출구조사에서 경제는 민주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 유권자의 45%가 4년 전보다 가계 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 70% 이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
- 장기금리 상승 → 모기지금리 상승 → 주거비 및 주택구매 부담 → 체감경기 악화: 미국 정부가 장기금리 하락이 필요한 이유

### 2024년 미 대선 유권자들의 경제 불안



자료: Edison Research, 하나증권

### 미국 모기지금리와 장기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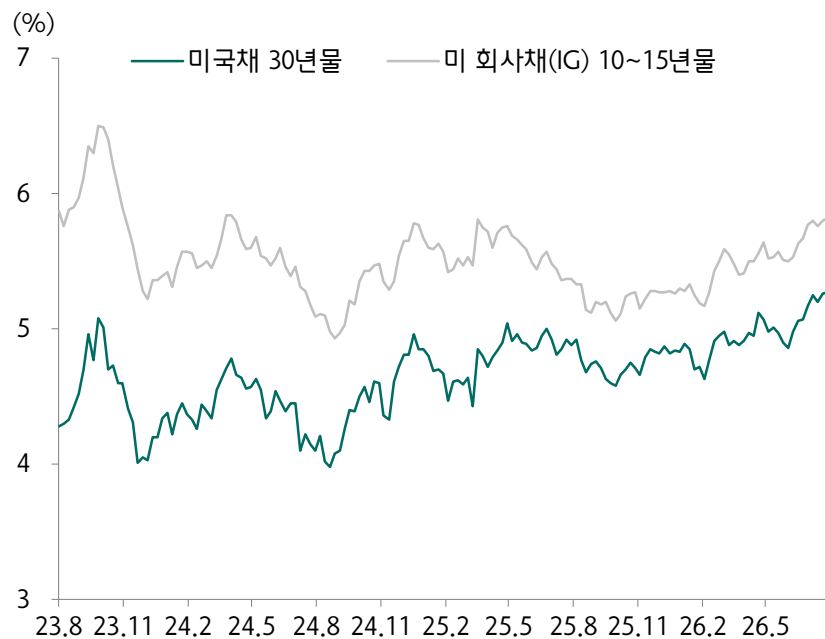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주식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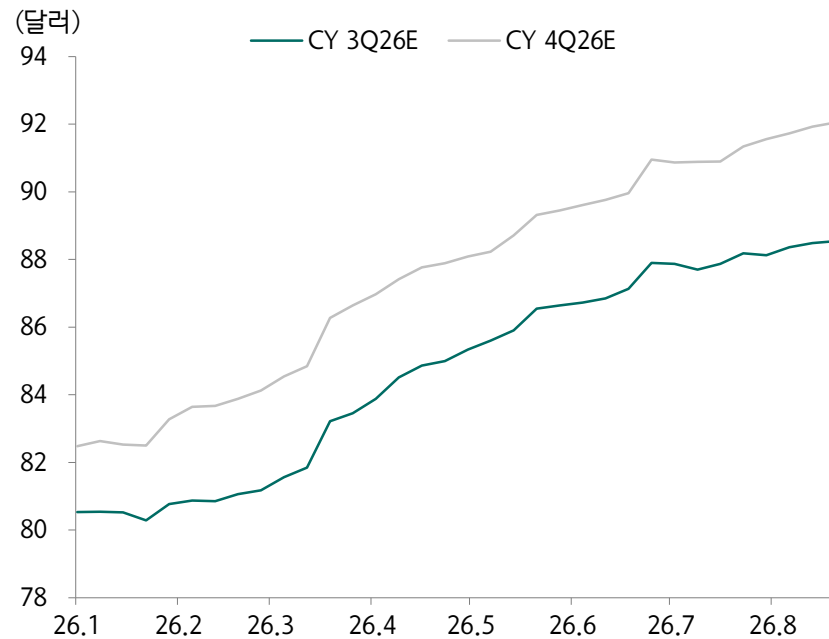
- 장기금리가 높아졌으나 기업이익 증가가 더 강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주식이 유리
- 미 30년물 국채 및 10~15년 IG 회사채 금리는 5%대 중후반까지 상승
- 채권의 절대 매력 확대됐으나, S&P 500은 YTD +13% vs.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50bp: 높은 금리에도 주식 강세 지속
- S&P 500의 CY 3Q26와 CY 4Q26의 EPS YoY 증가율 컨센서스는 각각 +27.6%, +25.6%: 이익 성장 지속 전망이 금리 부담을 상쇄

미국채 30년물과 회사채 추이



자료: Fred, Factset, 하나증권

S&P 500의 CY 3Q26, CY 4Q26 EPS 컨센서스 지속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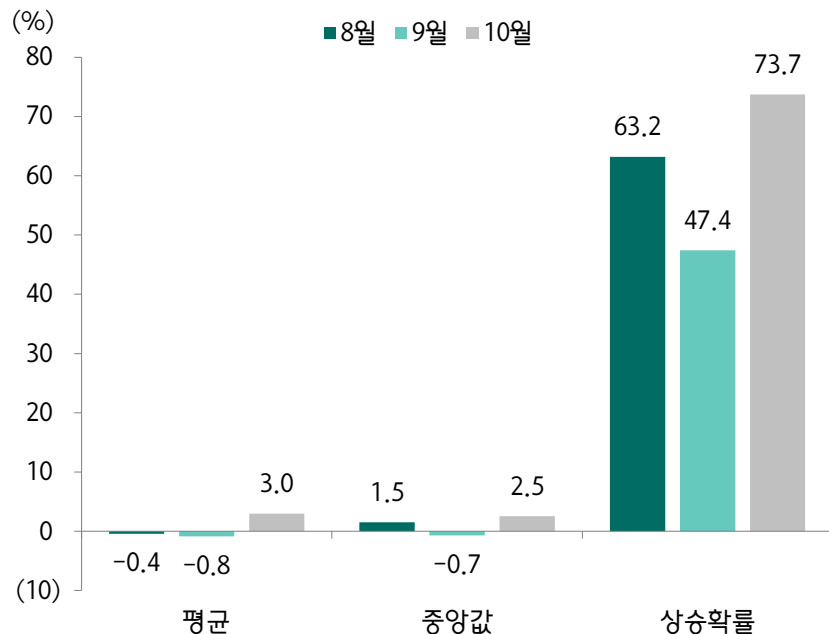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역사적 패턴 감안하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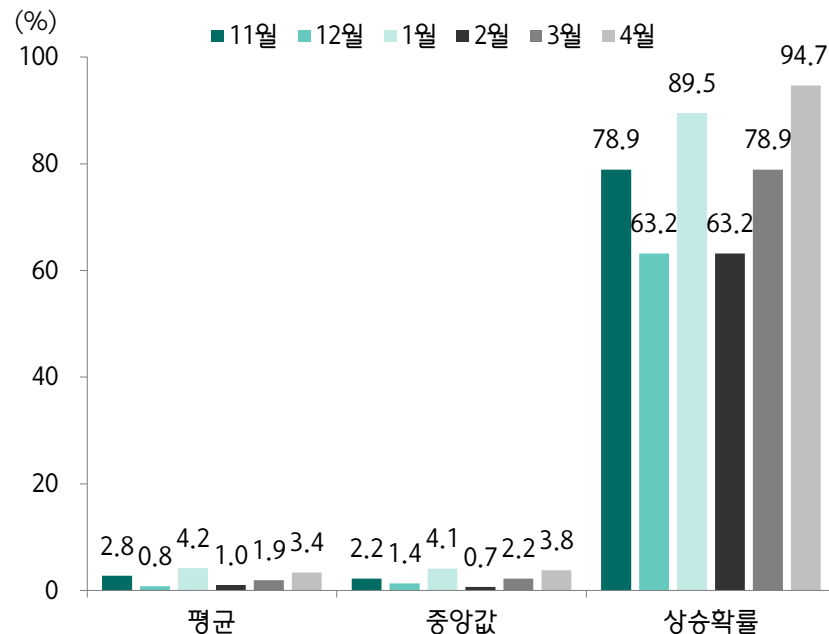
- 중간선거 전 역사적 패턴이 반복돼 증시 변동성 나타나더라도 추세전환 관점보다는 중간선거 이후 패턴 감안한 매수 전략 유효
-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중간선거 3개월 전 S&P 500은 대체로 부진했고 11월부터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왔음
- 9월 예산 문제(셋다운 등), 펀드 회계연도 종료, 9월 추정세(15일), 이스라엘 펀드 계절성(로쉬 하샤나 전 매도, 옴키푸르 무렵 매수) 등 수급 이슈도 有

1950~2022년 중간선거(19회) 전 3개월 S&P 500 수익률



자료: Fred, Factset, 하나증권

1950~2022년 중간선거(19회) 후 6개월 S&P 500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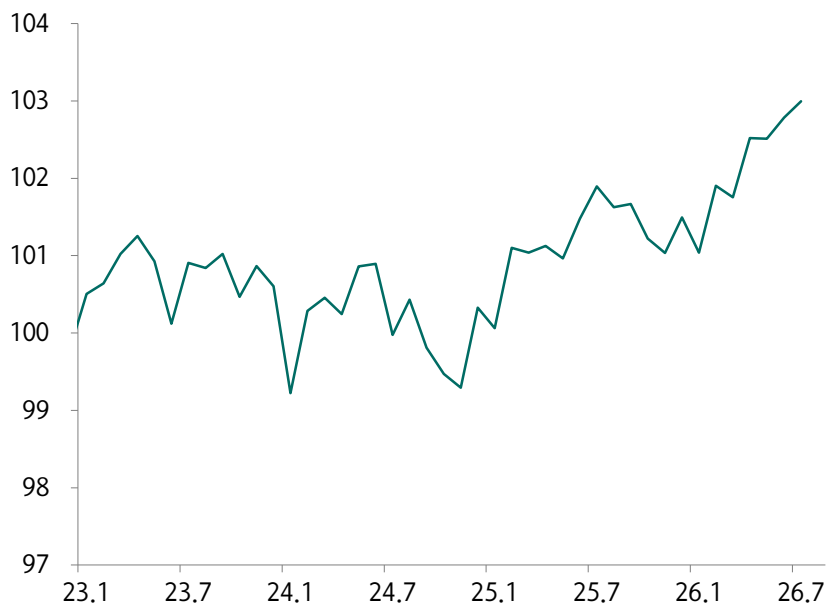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미국 산업생산(최종 사용처 기준): 우상향하고 있는 사무용 장비와 방산용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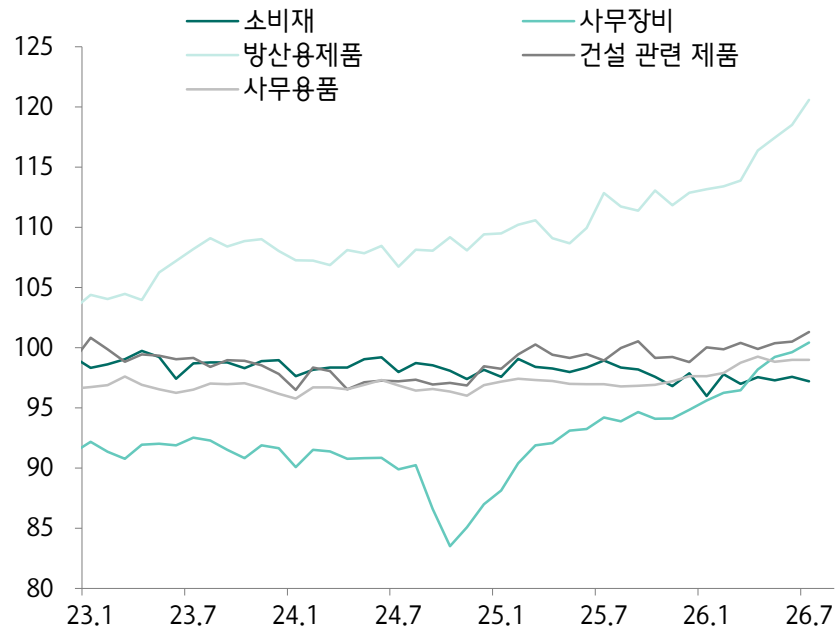
- 2024년 10월을 저점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생산
- 산업생산을 구성하는 5개 항목 중 가파른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항목은 사무용 장비와 방산용 제품 vs. 우하향하는 소비재
- 사무 및 방산용 수요는 견조하지만, 소비자용 수요는 약하다는 것을 시사

미국의 산업생산 추이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미국 산업생산 최종 사용처 기준 항목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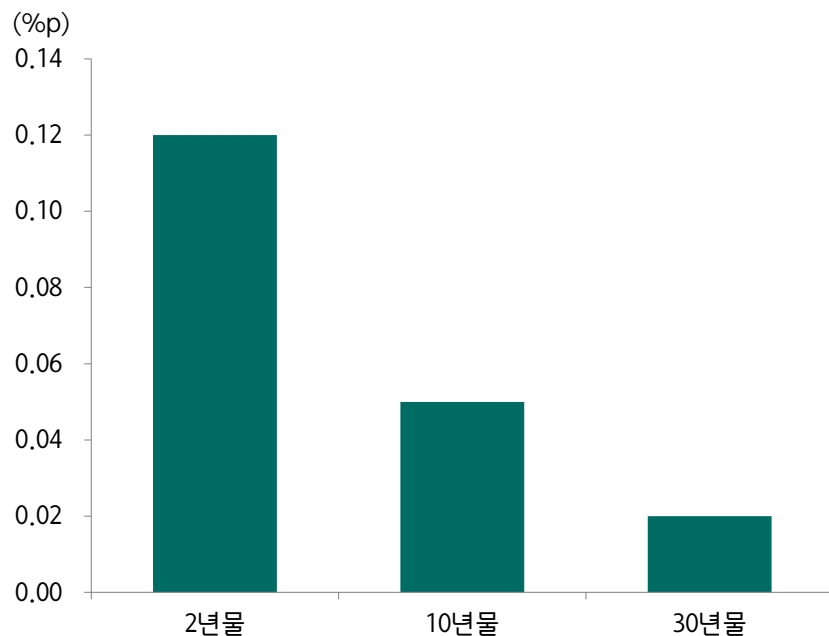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 잭슨홀미팅 ≠ Forward Gui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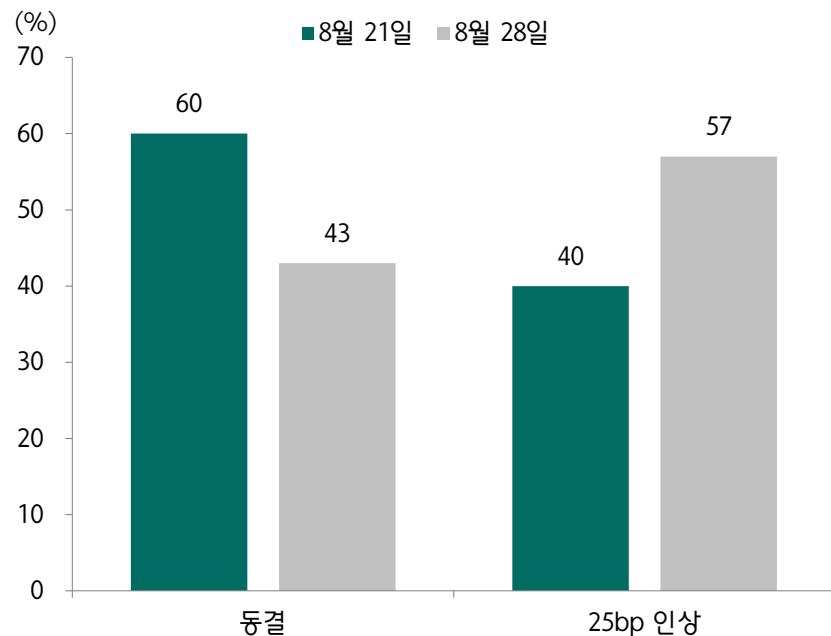
- 워시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된다면 9월 FOMC 전까지 베어 플래트닝 가능성 있지만, 9월 금리 동결 여지도 존재
- 8월 CPI가 약해지고, 9월 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단기 금리 하락과 장기금리 안정 가능
- 장기금리 부담과 추가 긴축 우려가 동시에 완화된다면 장기금리 때문에 밸류에이션 압박 받던 성장주, AI/반도체 등에겐 우호적

잭슨홀미팅 후 금리 변동



자료: Factset, 하나증권

잭슨홀미팅 후 CME FedWatch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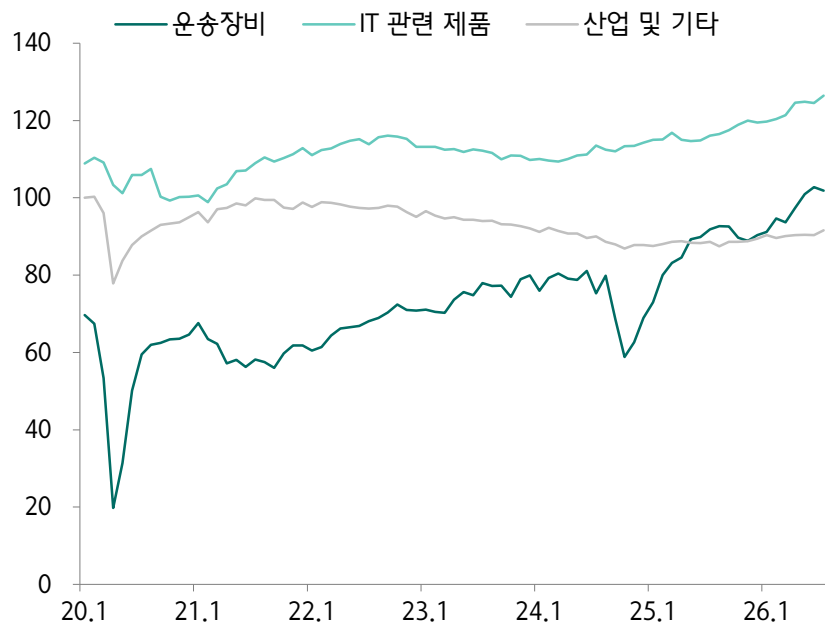


자료: CME, 하나증권

## 미국 산업생산(최종 사용처 기준): 사무용 장비에선 운송장비와 IT 관련 제품이 우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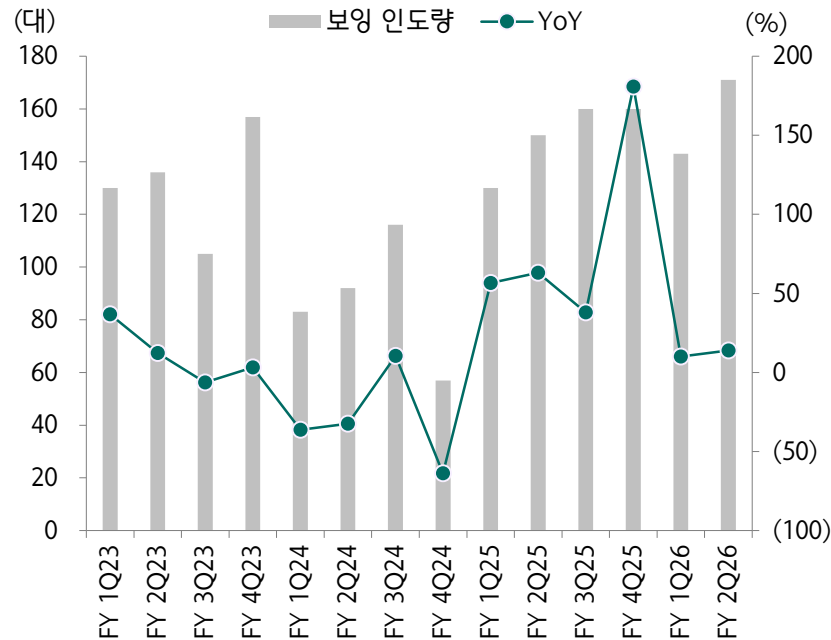
- 우상향하고 있는 사무용 장비를 견인하고 있는 운송장비와 IT 관련 제품
- 운송장비에선 꾸준한 방산 주문과 함께 보잉의 항공기 생산 정상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었을 것
- 보잉의 2024년 파업 및 생산차질(2024년 9월~11월) 이후 2025년부터 인도량 정상화: 26년 1분기는 MAX 737 배선 문제로 일부 물량이 2분기에 인도. 절대 인도량 측면에서도 26년이 25년보다 견조

미국 사무용 장비 세부항목 추이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보잉의 분기별 항공기 인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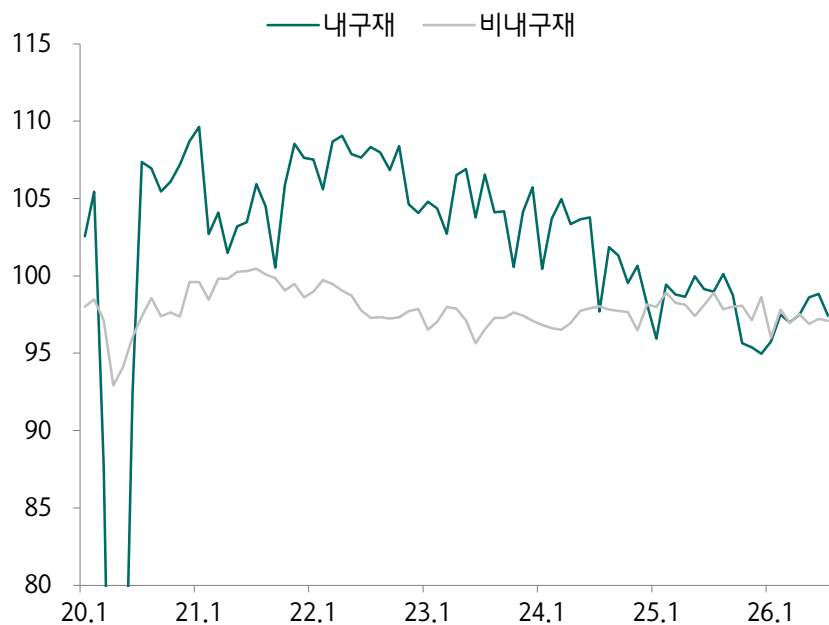


자료: 보잉, 하나증권

## 미국 산업생산(최종 사용처 기준):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부진, 내구 소비재 중 IT만 우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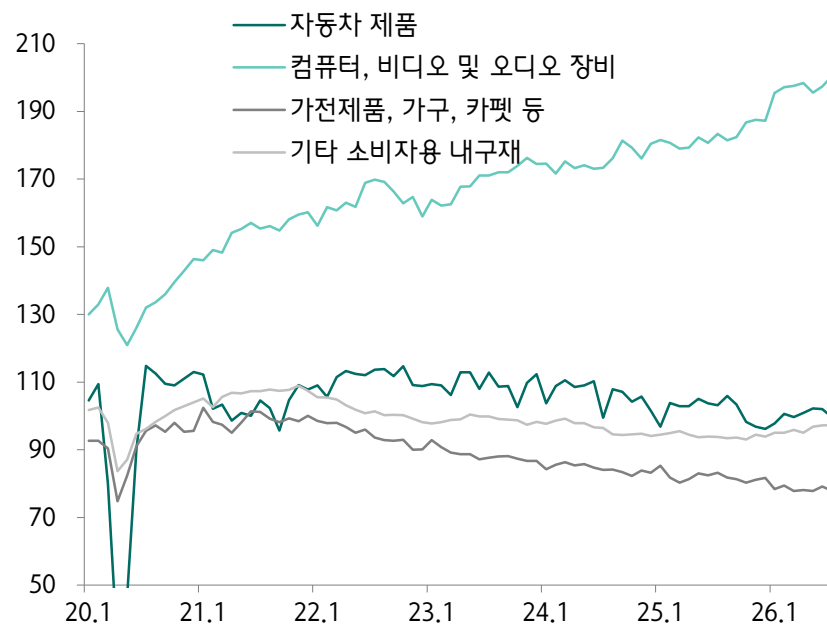
- 생산자 기준 소비재의 산업생산 지수는 전반적으로 부진
- 내구재는 우하향 추세, 비내구재는 횡보
- 내구재 하위 항목 중 IT(컴퓨터, 비디오 및 오디오 장비 등)만 우상향 지속

소비 산업생산 내 하위 항목 추이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내구 소비재 하위 항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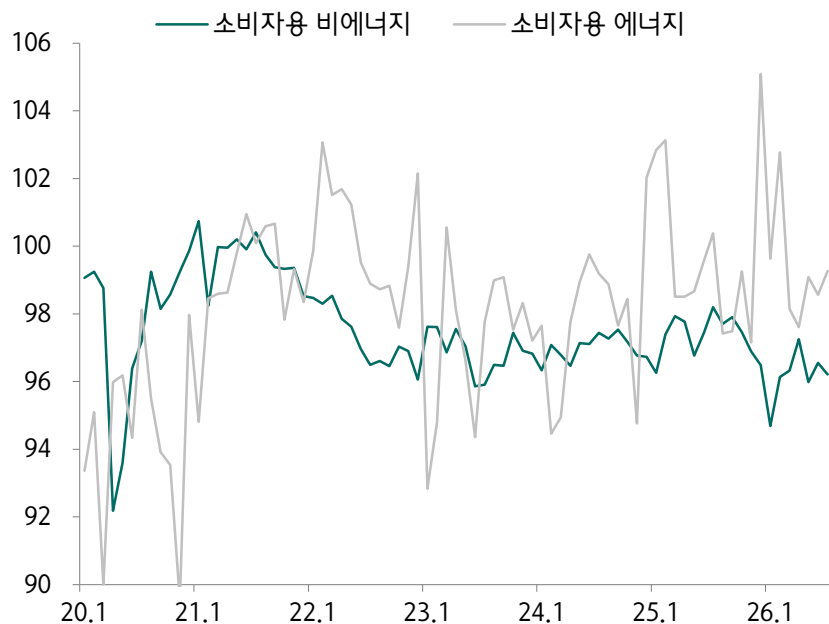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 미국 산업생산(최종 사용처 기준):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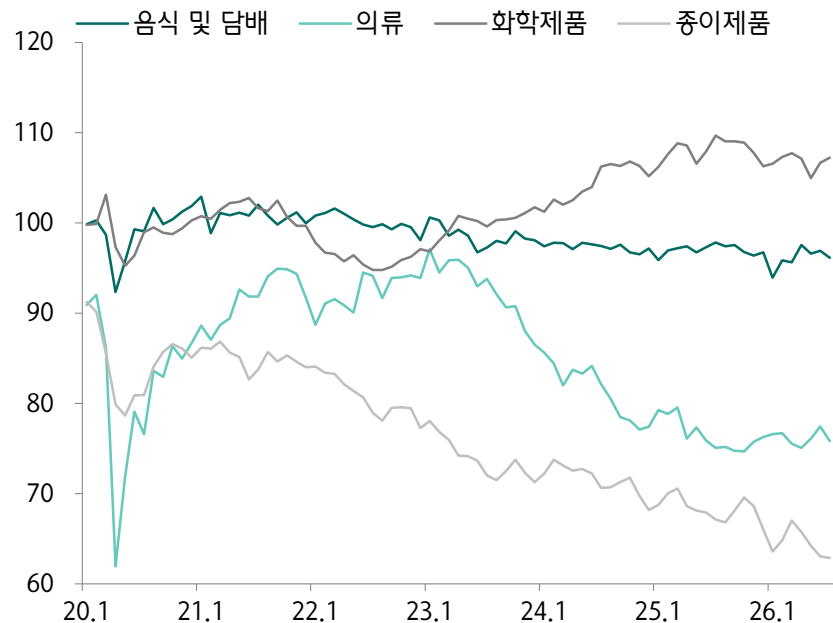
- 소비자용 비내구재 중 에너지와 비에너지 산업생산 전반적으로 약세
- 소비자용 비에너지 하위 항목 전반적으로 부진
- 월마트, TJX 등의 부진했던 2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생산자들도 소비에 대한 확신 약한 것으로 판단

### 소비 산업생산 내 비내구재 구성 항목 추이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 소비자용 비에너지 하위 항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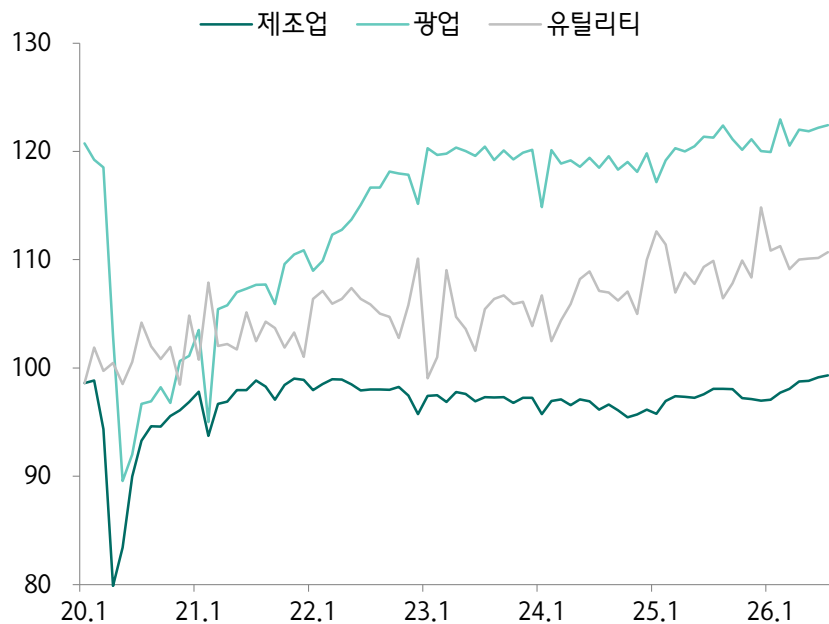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 미국 산업생산(생산자 기준): 양호한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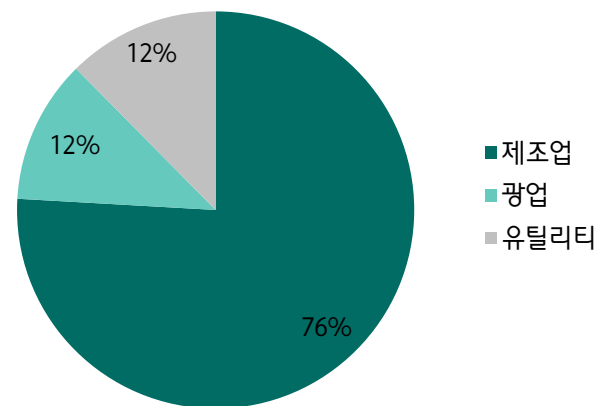
- 생산자 기준 미국 산업생산 하위 항목 모두 견조하나, 제조업 영향력 지대
- 미국 산업생산 생산자 기준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
-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을 위한 증설 효과,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방산 무기 생산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

미국의 산업생산 생산자 기준 항목별 추이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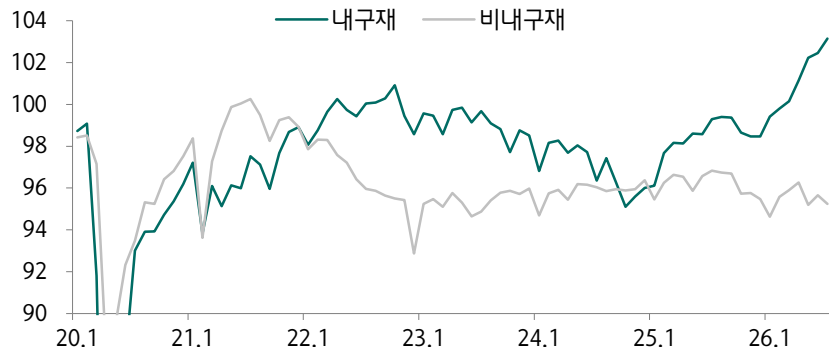
미국의 산업생산 생산자 기준 항목별 비중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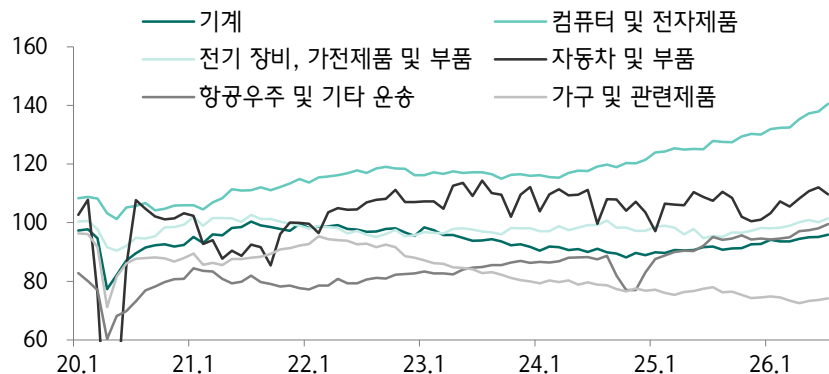
## 미국 산업생산(생산자 기준): 제조업에선 내구재가 유리(IT, 방위산업)

### 제조업 산업생산 세부 항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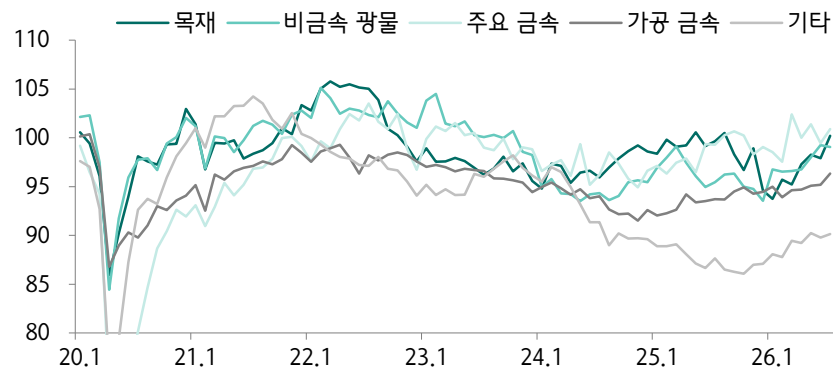
- 제조업 산업생산 세부 항목 중 내구재의 가파른 상승세 지속
- 내구재 중에선 컴퓨터 및 전자제품과 항공우주 및 기타운송이 우상향
- 컴퓨터 및 전자제품은 데이터센터 부품의 견조한 수요 긍정적
- 항공우주 및 기타운송에선 방산제품과 민간 항공기 등이 견인

### 제조업 내구재 산업생산 세부 항목 추이(1)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 제조업 내구재 산업생산 세부 항목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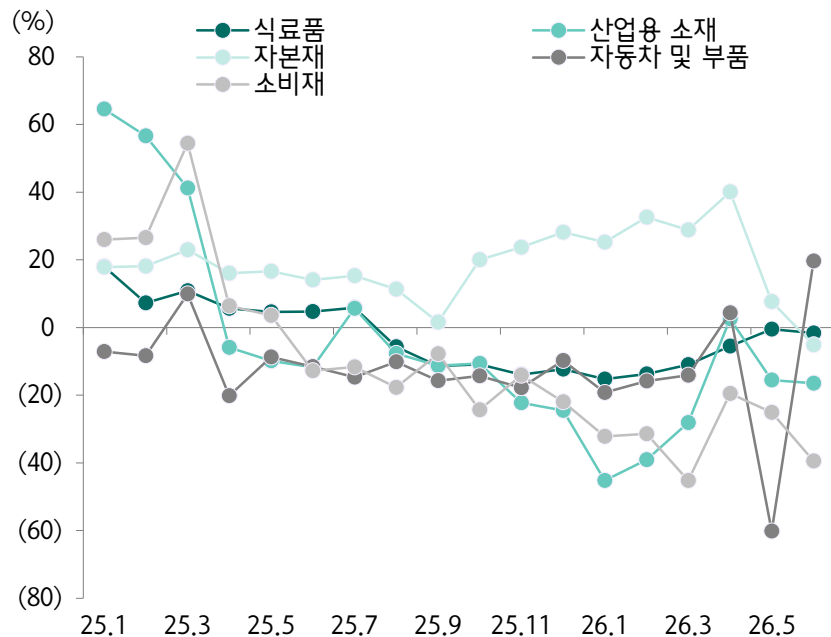


자료: 연방준비제도, 하나증권

## 미국 수입 지표: 강력한 자본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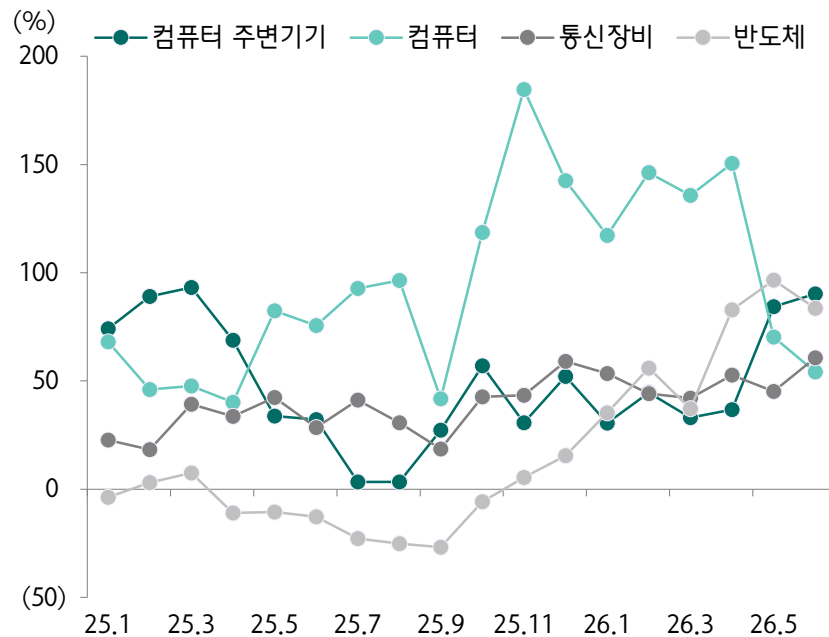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총 수입은 YoY -1.5%: 식음료 -8.2%, 산업용 소재 -20.4%, 자본재 +34.2%, 자동차/부품 -7.6%, 소비재 -25.6%
- 자본재 세부항목 중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장비, 반도체가 수입을 견인
- 상반기 자본재 수입은 전년 대비 1,861억 달러 늘었는데 이 중 1,838억 달러가 네 항목에서 발생
- AI 자본지출 확대가 미국 내 생산 증가와 해외 AI 하드웨어 수입 확대를 유도

미국의 상품 수입 주요 품목별 추이



자료: 미 통계청, 하나증권

미국 자본재 수입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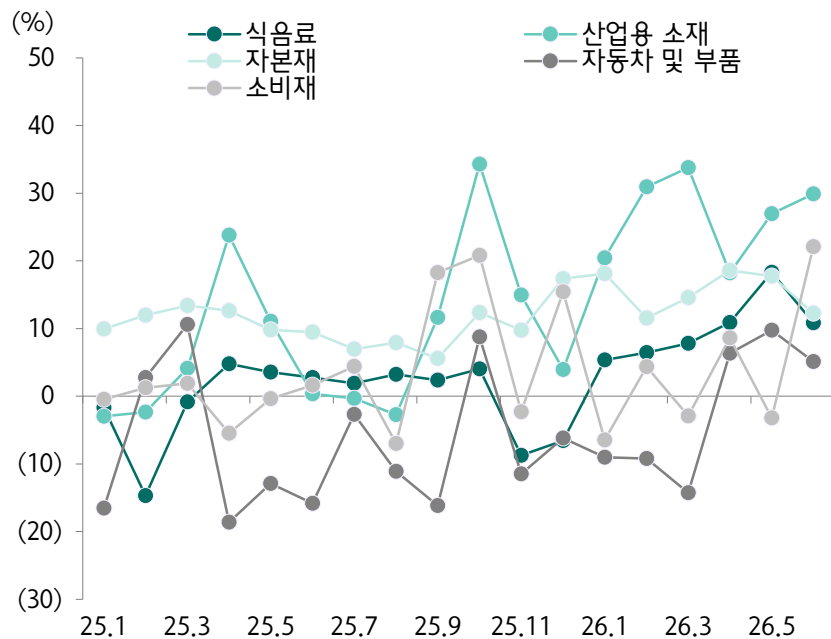


자료: 미 통계청, 하나증권

## 미국 수출 지표: 견조한 자본재 수출 & 산업용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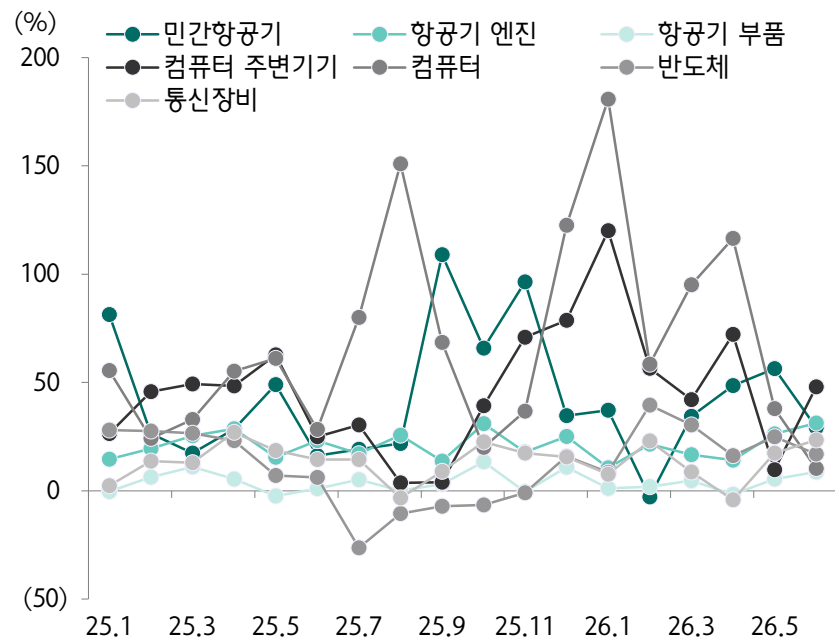
- 미국의 수출을 견인한 것은 자본재와 산업용 소재(귀금속, 원유 등)
- 산업용 소재는 미국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영향 있었을 것으로 판단
- 자본재 수출에선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 AI 관련 데이터센터용 부품들의 강세

미국의 상품 수출 주요 품목별 추이



자료: 미 통계청, 하나증권

자본재 주요 수출 항목 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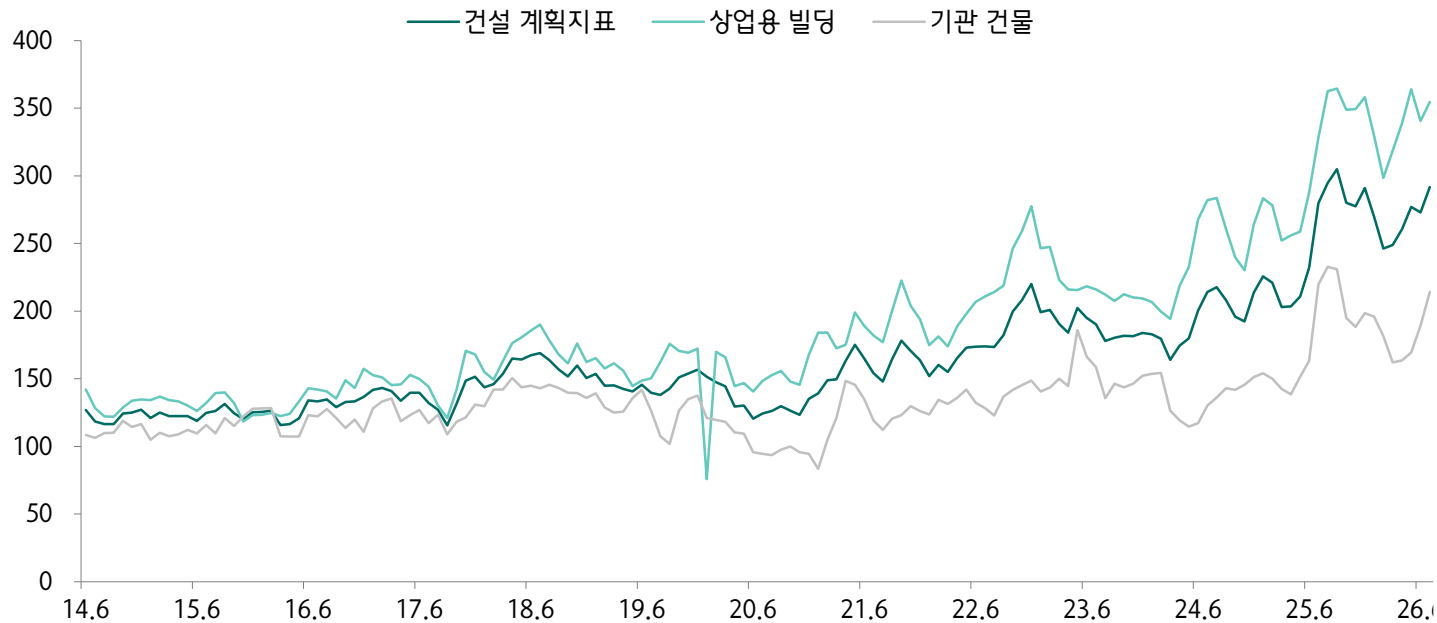


자료: 미 통계청, 하나증권

## 미국의 건설 계획지표 Update

- 미국의 건설 계획지표는 역사적 고점 부근 수준
- 7월 데이터센터와 주요 기관 건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건설 계획 추진
- 2027년 후반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문제

### 미국 지역사회의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후 취소 프로젝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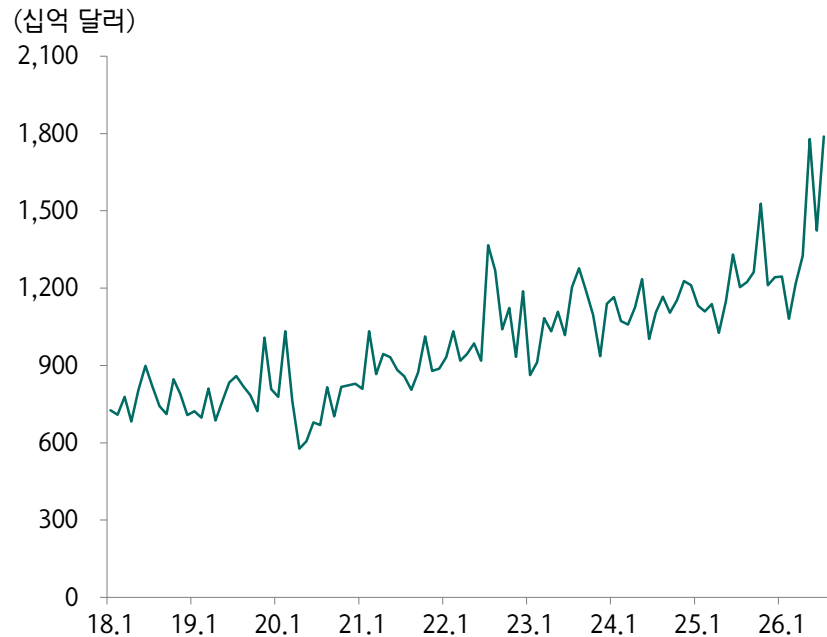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 미국의 건설 착공지표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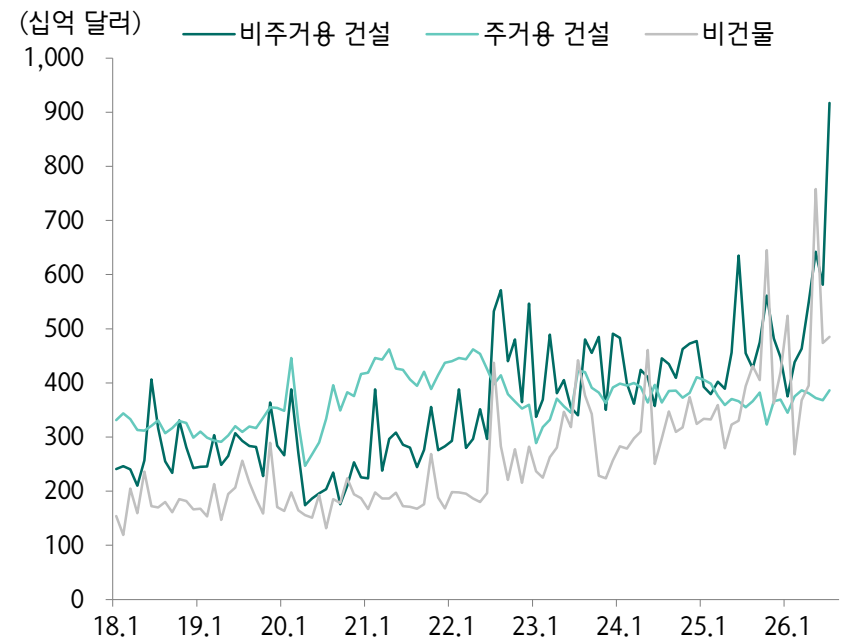
- 미국의 건설착공지표도 역사적 고점을 경신
- 비주거용 건설이 전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 데이터센터, 리쇼어링 등
- 에너지 파이프라인, 유틸리티 등 비건물 건설도 견조하지만, 주거용 건설은 부진
- 주택건설과 관련된 산업재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할 가능성도 주의할 필요 有

### 미국의 건설 착공지표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 미국 건설 착공지표 세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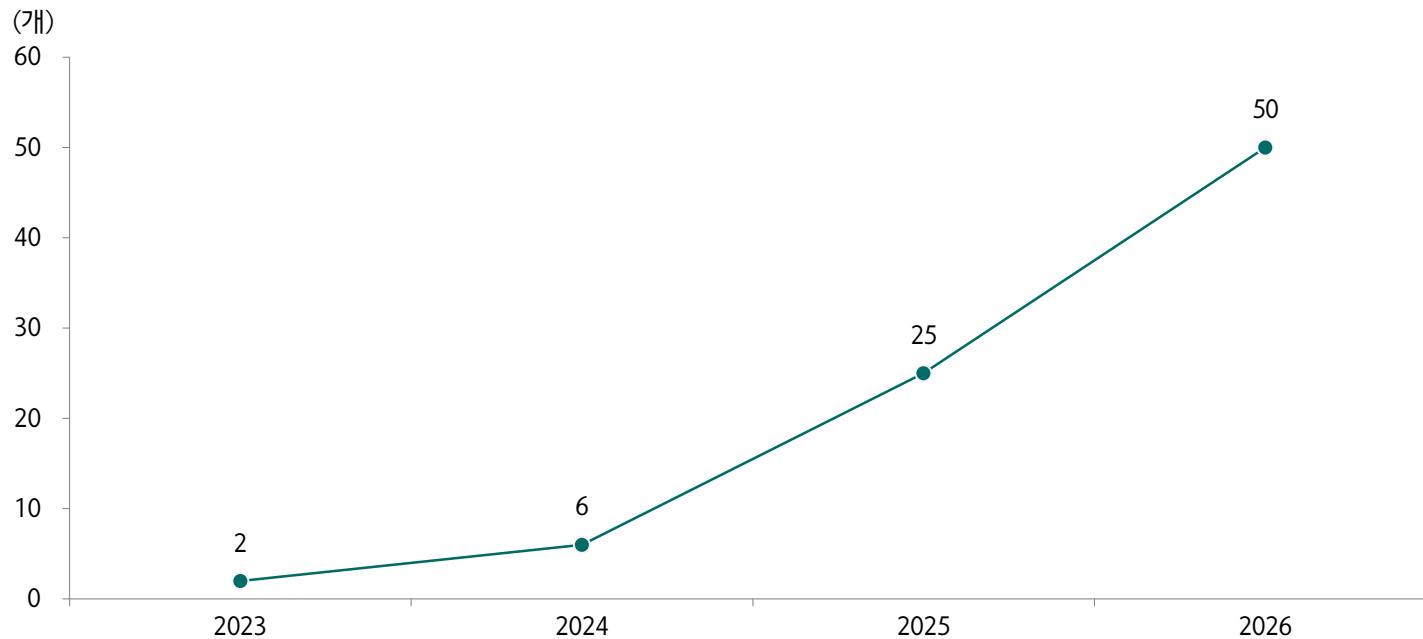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 지역사회의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 확대

- Data Center Watch, 2026년 1분기 기준 미국에서 최소 75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반대로 지연되거나 차단
- Heatmap Pro, 2026년 8월까지 지역사회 반대 이후 취소된 프로젝트는 50개 이상
-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지역사회 반대 이후 취소된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약 25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

미국 지역사회의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후 취소 프로젝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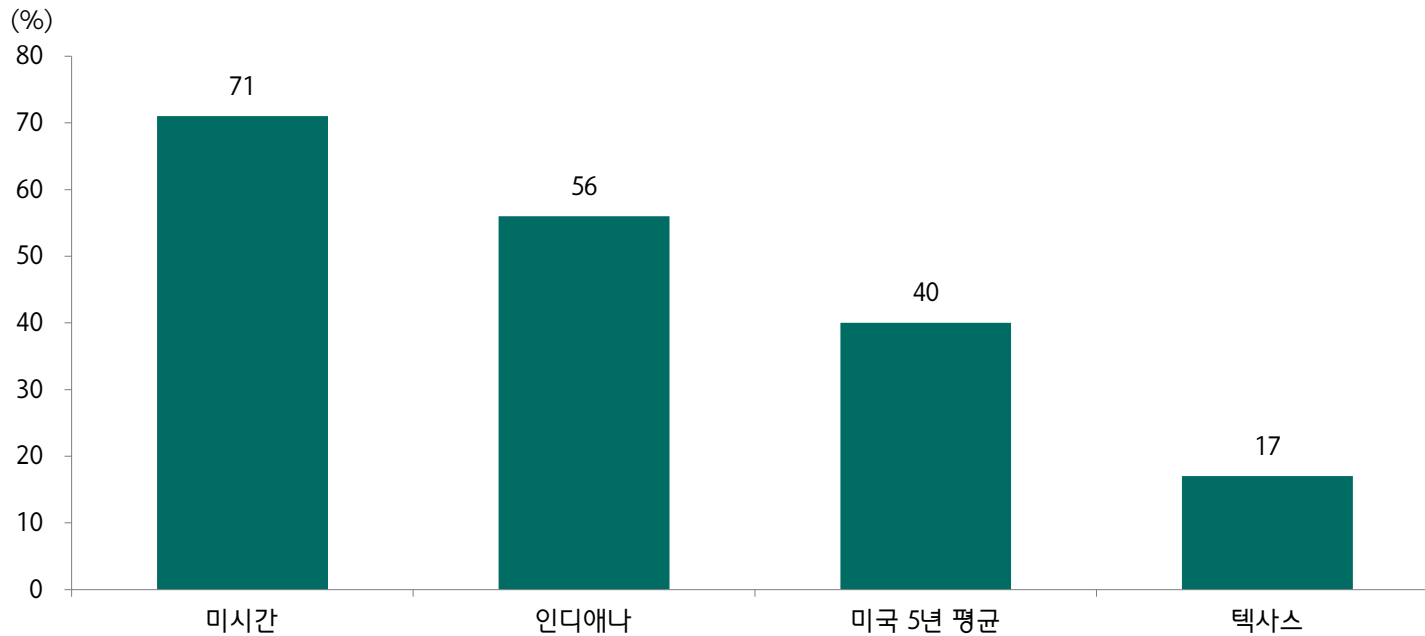


자료: Heatmap Pro, 하나증권

## 모든 지역의 반대 ≠ 데이터센터 건설 취소

- 모든 지역의 반대가 데이터센터 건설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주 별 차이 존재: 미시간주 71% vs. 텍사스주 17% → 주민들의 찬반 강도만으로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움
- 제도나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대응에 따라 지역사회 반대에 따른 취소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주민 반대에도 주별 취소율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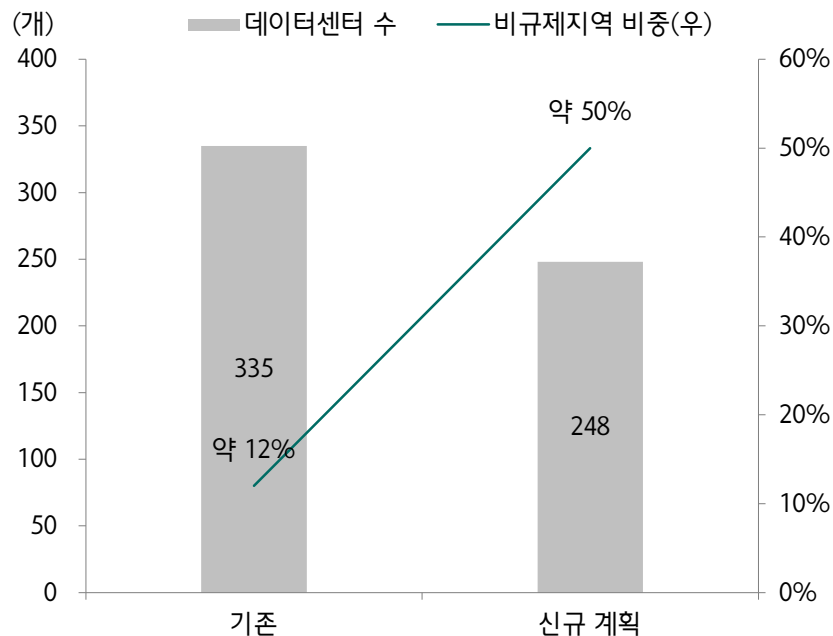
자료: Heatmap Pro, 하나증권



## 텍사스는 왜 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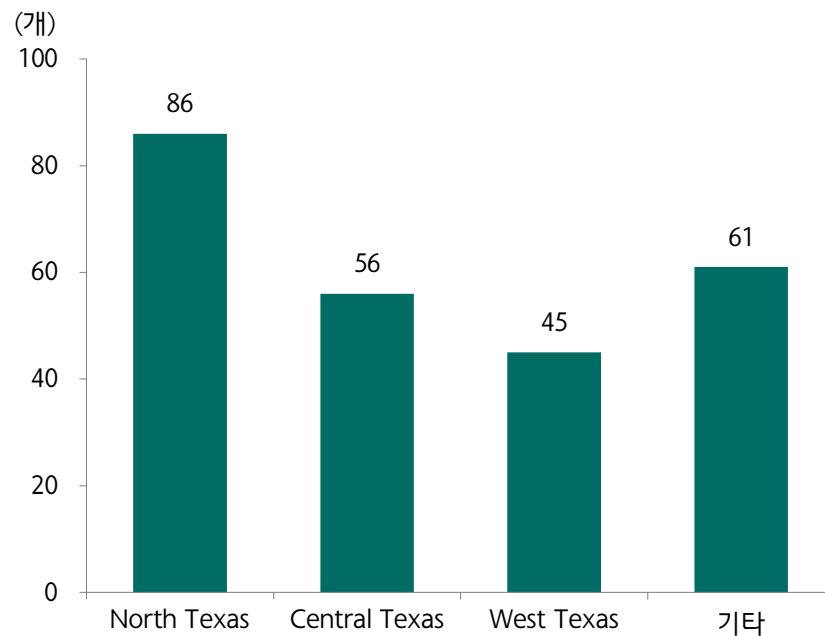
- 텍사스는 카운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도 비규제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 미시간은 지방정부가 토지용도를 결정하고, 주민들 개입 가능 vs. 텍사스의 도시는 토지이용 규제 가능하지만 County는 권한 약함
- Hood County, 주민 반대 컷지만 신규 개발 일시 중단 조치가 두 차례 무산: 규제 권한 없으며, 조례 강행 시 소송 위험 대
- 텍사스의 새로운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

비규제 지역 비중이 높은 신규 텍사스 데이터센터



자료: Texas Tribune, 하나증권

텍사스에 계획된 지역별 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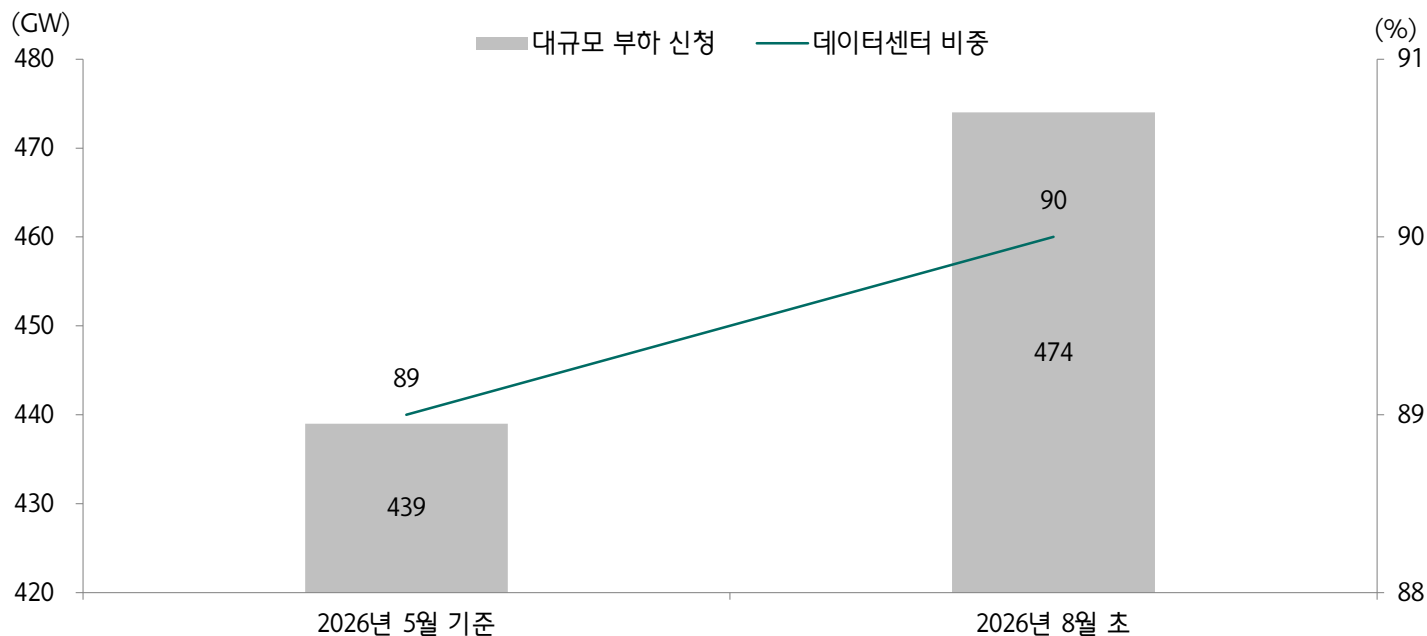


자료: Texas Tribune, 하나증권

## 텍사스의 8월 조치는 공급 중단보단 '전수 검증'

- 최근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일시 중단을 전면적인 건설 금지로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음
- 텍사스의 Abbott 주지사는 8월 초 텍사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PUCT)와 텍사스 전기 신뢰성 위원회(ERCOT) 등에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용수 사용, 세제혜택, 소유구조와 지역사회 대응 등을 전수 점검 지시: 점검 종료까지 신규 대규모 부하의 계통 접속 보류
- 신규 계통접속 신청 검증 후 기준 충족 프로젝트 선별 과정

### 2~3개월 사이 크게 늘어난 텍사스의 대규모 부하 신청



자료: Texas Tribune, Reuters, 하나증권

## 지역사회의 반대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반대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구분 필요
- 토지용도 변경 거부나 주민투표처럼 개발 자체를 막을 권한이 강한 지역에서는 프로젝트가 취소될 가능성 有
- 개발 자체는 가능하지만 용수, 전력, 지역사회 부담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은 비용증가
- 인허가와 계통접속 기간 지연: 길어질 수 있는 자본회수 기간

### 지역사회 반대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구분

|                      | 내용                                                                                                                                                                                                                                                                                                                                                             |
|----------------------|----------------------------------------------------------------------------------------------------------------------------------------------------------------------------------------------------------------------------------------------------------------------------------------------------------------------------------------------------------------|
| 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권한 강할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또는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실제 프로젝트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li> </ul>                                                                                                                                                                                                                                        |
|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해결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자체는 가능하지만, 용수, 전력, 지역사회 부담 등 기준 충족을 위해 투자자금이 늘어날 수 있음</li> <li>• 용수문제: 폐쇄형 냉각, 공랭식 시스템 등</li> <li>• 소음: 방음설비, 장비 배치 변경 등</li> <li>• 전력망 부담: 신규 발전용량, 변전소와 송전망 보강 등</li> <li>• 세인트루이스: 2026년 4월 데이터센터 승인하면서 폐쇄형 냉각과 공랭식 칠러, 추가 용수 관련 비용 부담, 환경 영향 보완 등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요구 → 프로젝트 취소 대신 주민들의 요구가 비용으로 전가된 사례</li> </ul> |
|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와 계통접속 보류가 지속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투자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li> </ul>                                                                                                                                                                                                                                                         |
| 공통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공기가 길어짐: 비용 확대의 문제로 귀결</li> </ul>                                                                                                                                                                                                                                                                      |

자료: 언론종합, 하나증권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도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비용 부담 높이는 방향

- 하이퍼스케일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재
- Ratepayer Protection Pledge(2026년 3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등 참여.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관련 비용을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 금지
- 주정부도 같은 방향 나타나고 있음: 펜실베이니아 주에선 주정부 지원을 원하는 데이터센터가 발전용량 직접 확보하고, 비용 전액 부담

### Ratepayer Protection Pledge

| 지표                    | 수치                                          |
|-----------------------|---------------------------------------------|
| 최초 서명 Tech/AI 기업      | 7개: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등 |
| 7월 추가 참여 기관           | 200개 이상 추가                                  |
| Pledge가 포괄하는 미국 전력공급  | 80%                                         |
| 포괄 인구                 | 263mn                                       |
| Pledge 핵심 commitments | 5개                                          |

자료: 백악관, 언론종합, 하나증권

###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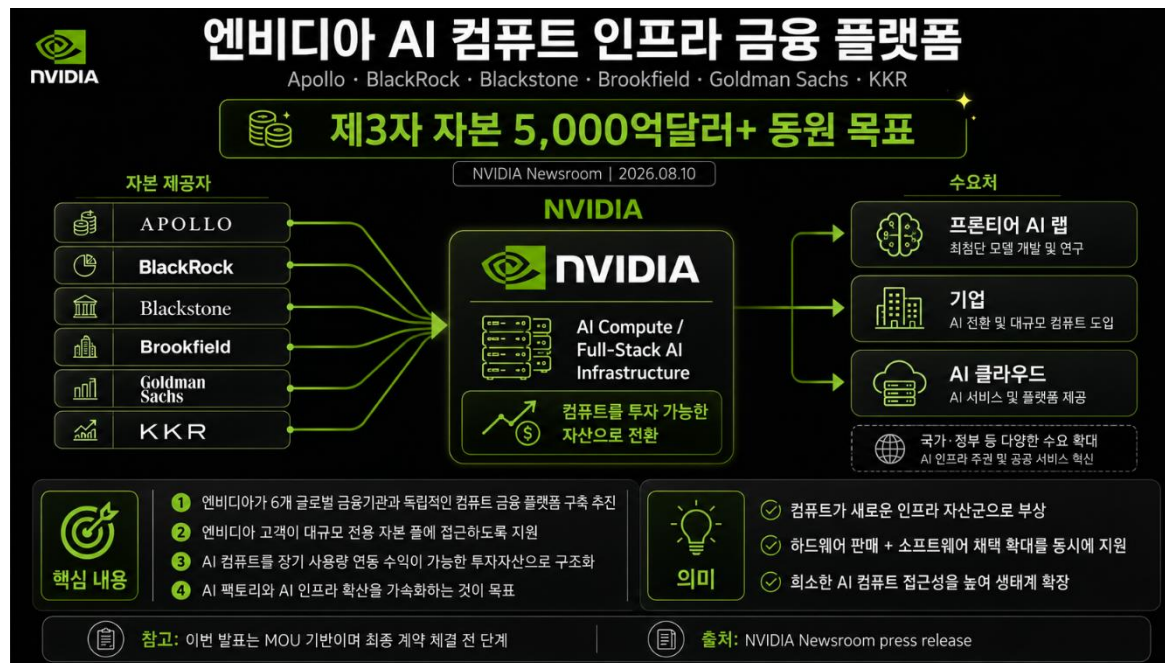
|                                             | 내용                                                                                                                                                                                                                                                                                                                                                                                                                     |
|---------------------------------------------|------------------------------------------------------------------------------------------------------------------------------------------------------------------------------------------------------------------------------------------------------------------------------------------------------------------------------------------------------------------------------------------------------------------------|
|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1월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필요한 전력과 관련 인프라 직접 부담하겠다고 발표</li> <li>• 이유: 데이터센터 건설로 주민의 전기요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주장</li> <li>• MISO 지역에서 신규 발전용량 7.9GW 계약: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송전망이나 변전소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하겠다는 방침</li> <li>• 미국에서 신규 송전망을 건설하는 데 입지선정과 인허가 문제로 7~10년 이상의 기간 소요</li> <li>• FERC도 2026년 6월 미국의 6개 주요 지역 전력망 운영 기관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계통접속 규칙을 개편하거나 정당화하도록 요구</li> </ul> |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언론종합, 하나증권

## 지역 사회 반대 이슈에서 찾는 아이디어: 엔비디아, AI 인프라 금융의 필요성

- 미국 지역사회의 데이터센터 반대는 AI 인프라 금융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 확대되는 비용을 자기자본만으로 감내하긴 부담
-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여지 충분: 신흥 AI 기업들에게 수익 공유 및 신용 지원 모델을 통해 AI 팩토리 확장을 구상
- 한 발 더 나아가 6개 대형 금융기업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제 3자 자본을 지원하는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출범

###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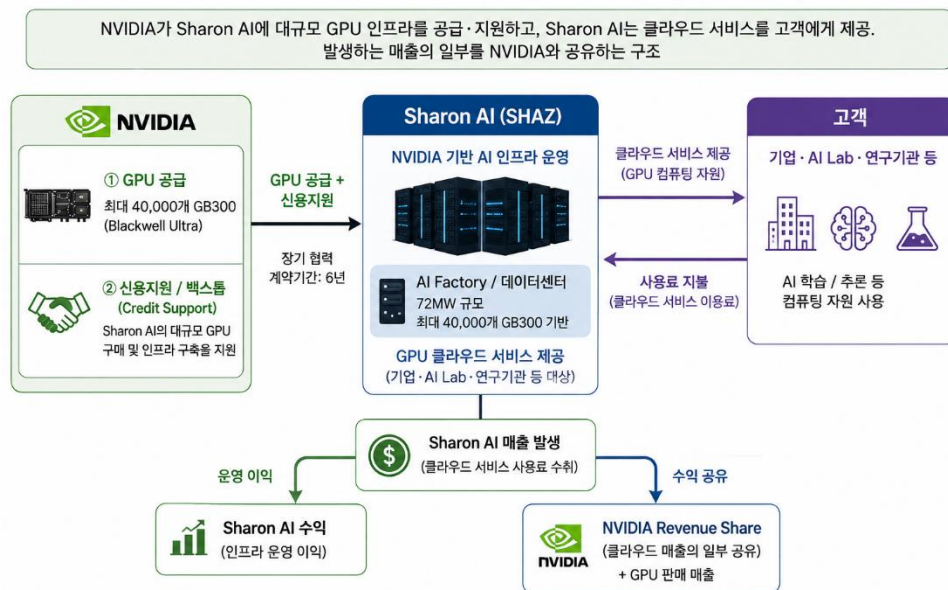
자료: NVIDIA, 하나증권

## 지역 사회 반대 이슈에서 찾는 아이디어: 엔비디아, Sharon AI 사례

- AI 클라우드가 엔비디아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 → 엔비디아는 GPU 매출 + 클라우드 매출 일부 수취 + 엔비디아 플랫폼 확장
- 엔비디아는 이를 사용량에 연동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원이라고 설명(Recurring, Usage-Linked Earnings Stream)
- Sharon AI 사례: 2026년 6월 엔비디아와 Sharon AI는 6년 계약. 최대 40,000개의 GB 300 GPU, 72MW 규모로 최대 \$4.9억 달러 계약
- Sharon AI → NVIDIA GPU 구매 → NVIDIA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 → NVIDIA는 GPU 매출 발생 + 해당 클라우드 매출 일부 수취

### Sharon AI와 엔비디아의 사례

#### NVIDIA - Sharon AI 협력 구조 (수익 공유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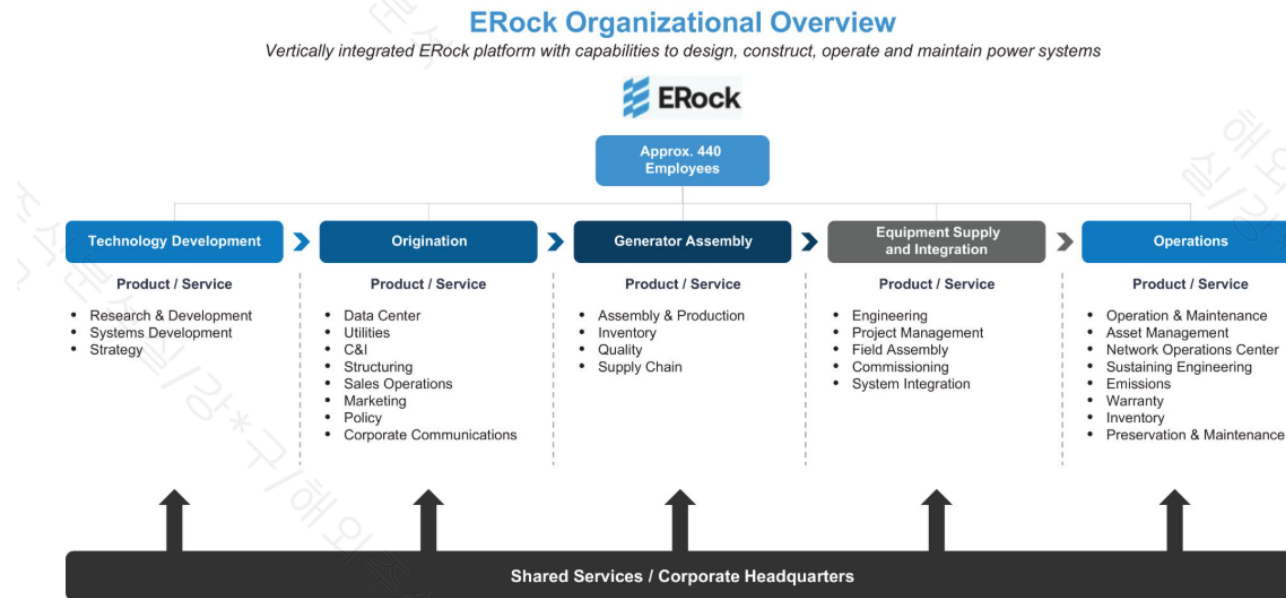


자료: NVIDIA, Sharon AI, 하나증권

## 지역 사회 반대 이슈에서 찾는 아이디어: E-ROCK, 천연가스 온사이트 발전 플랫폼

- 천연가스 기반의 모듈형 발전설비를 활용. 데이터센터 등에 신속한 온사이트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 전원 인프라 기업
- 엔트로픽 수주 470MW 규모 포함 약 17억 달러 규모 확보. 엔진 생산설비는 2027~2028년 초까지 완판된 상황
- 초반엔 데이터센터 Brid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GRID 연결 후엔 백업 전원으로 활용 가능
- 주요 고객으로 메타(엘 파소 366MW), 마이크로소프트(63MW), 위스트론(10MW), 월마트(450MW) 등을 확보

### 전력 시스템의 개발부터 제작, 설치, 운영까지 수직계열화한 플랫폼



자료: E-ROCK, 하나증권

## 지역 사회 반대 이슈에서 찾는 아이디어: 사이퍼 디지털, DC 전력 선점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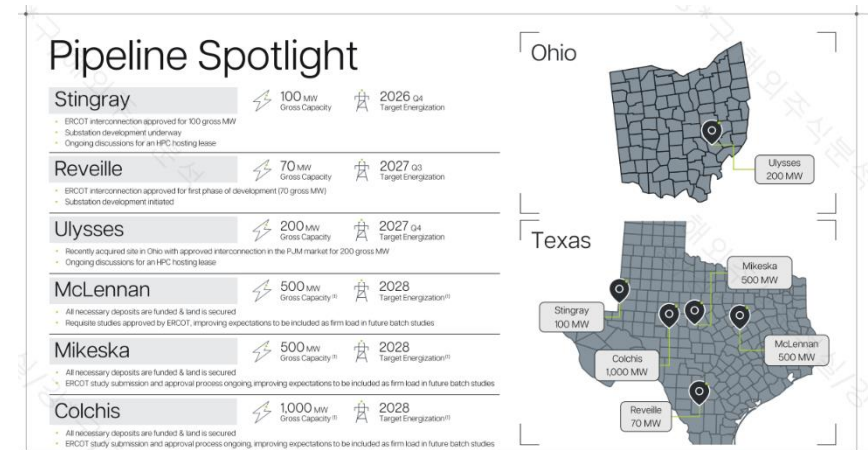
- 기존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의 대규모 전력과 부지를 활용해 전력이 확보된 데이터센터 용량을 임대해주는 기업
- 희소한 전력 접근권을 확보한 기업: 데이터센터의 Grid 연결 지연이 길어질수록 기존 전력 접근권의 희소가치 상승
- 2027년 가동을 위한 수주 모멘텀: AI 고객들이 2027년 3Q~4Q 데이터센터(Reveille, Ulysses 등) 가동 요구할 경우 데이터센터 공기 감안하면 4분기 수주 가능성 존재

26년 3분기 착공한 DC는 27년 상반기 가동: 공기는 약 1년 내외일 것

사이퍼 디지털의 계획된 파이프라인



자료: 사이퍼 디지털,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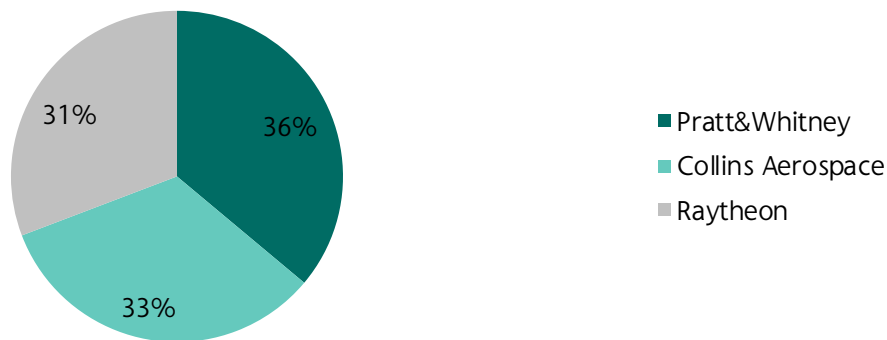
자료: 사이퍼 디지털, 하나증권



## 산업데이터에서 찾아보는 아이디어: RTX, 국방비 확대와 민항기 수요 회복 동시 수혜

- RTX는 전 세계 국방비 확대 움직임과 민항기 수요 회복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기업
- FY 2025 기준 매출 중 약 30.8% 비중을 차지하는 Raytheon 사업부(방산)는 미사일 보충 및 골든돔 프로젝트의 직접 수혜
- RTX는 전 세계 3대 엔진 기업인 Pratt&Whitney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 민항기 수요회복 시 엔진 및 MRO 매출에 긍정적
- MRO 사업부는 이익이 좋다는 점에서 수익성에도 긍정적

RTX의 FY 2025 사업부별 매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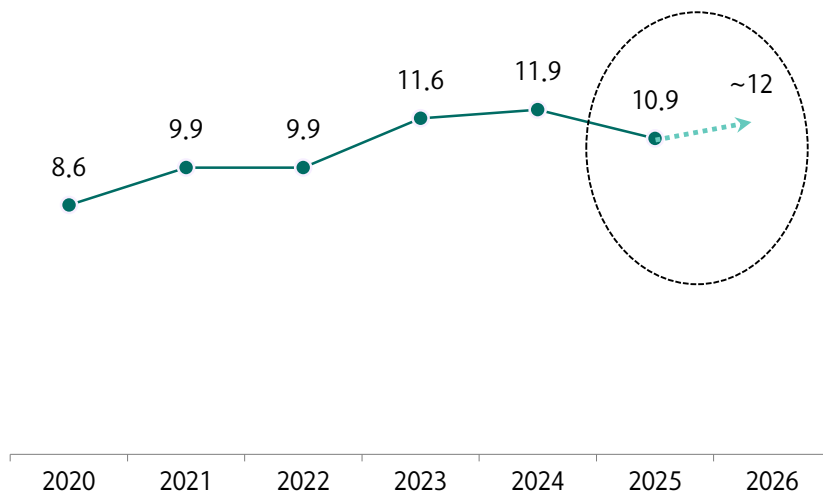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 AI 도입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안 중요도 상승, 보안 지출 비중 확대 본격화 기대

- AI 투자 집중으로 IT지출에서 보안 비중이 2025년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으나 2026년부터 상승 전환 예상
- 사이버보안 지출에 대한 우려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보안 지출 촉발, AI 도입 가속화는 보안 수요 상승 요인
- 보안 지출을 IT 지출이 아닌 AI 지출 항목으로서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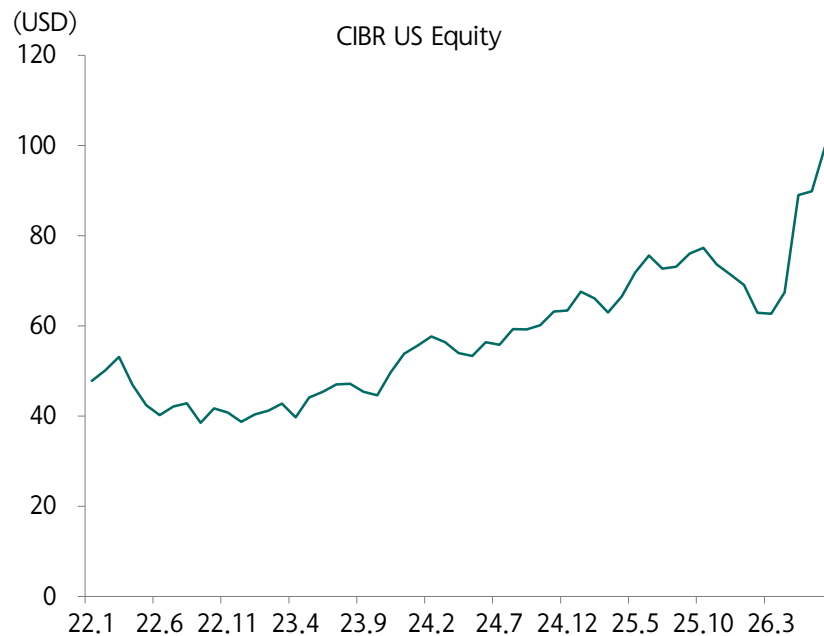
### IT예산의 보안 비중, 25년 하락 후 26년에 다시 상승 전환 예상

(%) IT지출 대비 보안 예산 비중, 2026년 반등 전망



자료: IANS, RSA, 하나증권

### 사이버보안 ETF 추가



자료: RSA, 하나증권

## 보안 제품에 AI 적용 & AI 보안 제품 새롭게 출시가 Top 2 과제

- 보안 산업의 Top 5 중점 과제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보안에 AI 기술 적용이 25년에 이어 26년에도 Top 1 과제
- AI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이 26년에 처음으로 Top 2로 등극. AI 보안 상품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

보안 산업 Top 5 과제: 26년은 보안에 AI 적용 & AI 보안이 최우선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1 | 해킹           | 클라우드 보안      | 거버넌스 & 리스크 | 보안에 AI 적용  | 보안에 AI 적용  |
| 2 | 클라우드 보안      | 거버넌스 & 리스크   | 해킹         | 거버넌스 & 리스크 | AI & ML 보안 |
| 3 | 인시던트 대응 & 복구 | 해킹           | 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보안    | 거버넌스 & 리스크 |
| 4 | 거버넌스 & 리스크   | 애플리케이션 보안    | 애플리케이션 보안  | 애플리케이션 보안  | 클라우드 보안    |
| 5 | 애플리케이션 보안    | 인시던트 대응 & 복구 | 보안에 AI 적용  | AI & ML 보안 | 해킹         |

자료: RSAC, 하나증권

## 보안 산업 최대 관심 분야는 아이덴티티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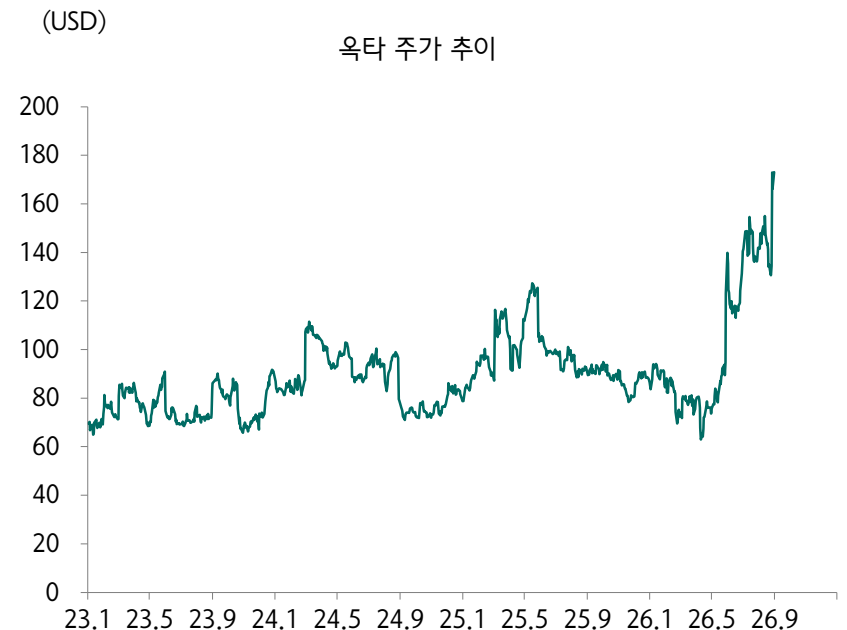
- 보안 대상이 사람, 머신(non-human), AI로 점차 확대. AI 에이전트 생성은 머신 ID 폭증으로 이어지며 보안 산업에서 아이덴티티 보안 중요도 더욱 확대될 것
- 보안 침해 80% 이상 신원 인증과 관련 문제에서 비롯.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에이전트 도입 본격화는 아이덴티티 보안 수요 급증 요인
-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수요 증대는 아이덴티티 전문 사업자 옥타에 대한 주가 상승 견인

### 아이덴티티 보안, 주요 세부 분야 & 대표 사업자

|           | IAM<br>(Identity & Access<br>Management)                   | PAM<br>(Privileged Access<br>Management)  | IGA<br>(Identity Govern.<br>& Administration) |
|-----------|------------------------------------------------------------|-------------------------------------------|-----------------------------------------------|
| 목적        | 사용자 인증 &<br>리소스 접근 제어                                      | 고위험 계정 보호 &<br>관리 통제                      | 권한 부여, 회수 및<br>감사. 정책 검토                      |
| 대상        | 모든 사용자, 계정                                                 | 관리자, 운영자 등<br>특권 계정                       | 모든 사용자 & 계정                                   |
| 주요<br>기능  | 로그인 인증<br>SSO(single sign on)<br>MFA(다단계 인증)<br>Oauth/OIDC | 세션 보호 & 기록<br>자격 증명 회전<br>명령어 로깅          | 권한 부여, 회수<br>접근 검토<br>규제 준수 & 감사              |
| 주요<br>사업자 | 옥타,<br>마이크로소프트<br>Ping Identity<br>ForgeRock               | 사이버아크<br>(팔로알토가 인수)<br>비욘드트러스트<br>Delinea | SailPoint<br>Saviynt<br>One Identity          |

자료: 하나증권

### 아이덴티티 전문 사업자 옥타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빠르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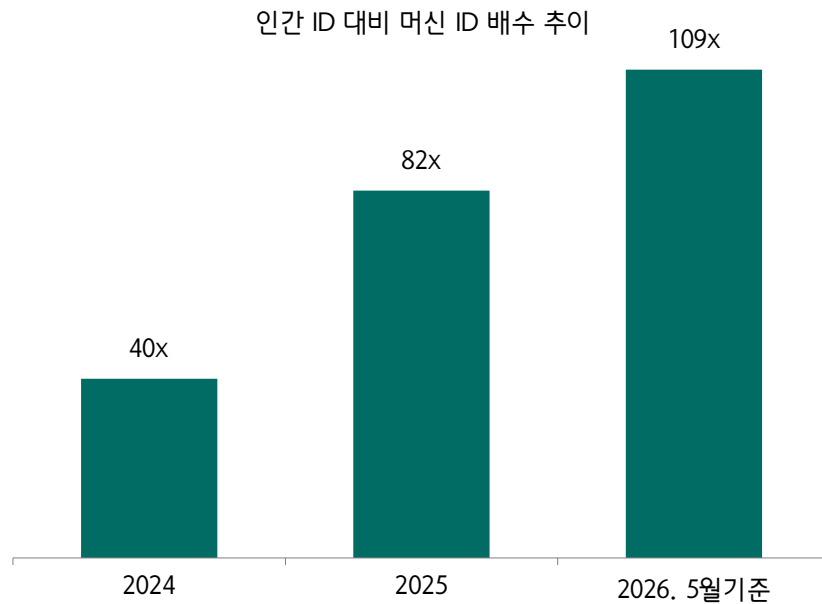


자료: Capital IQ, 하나증권

## 머신 아이덴티티 폭발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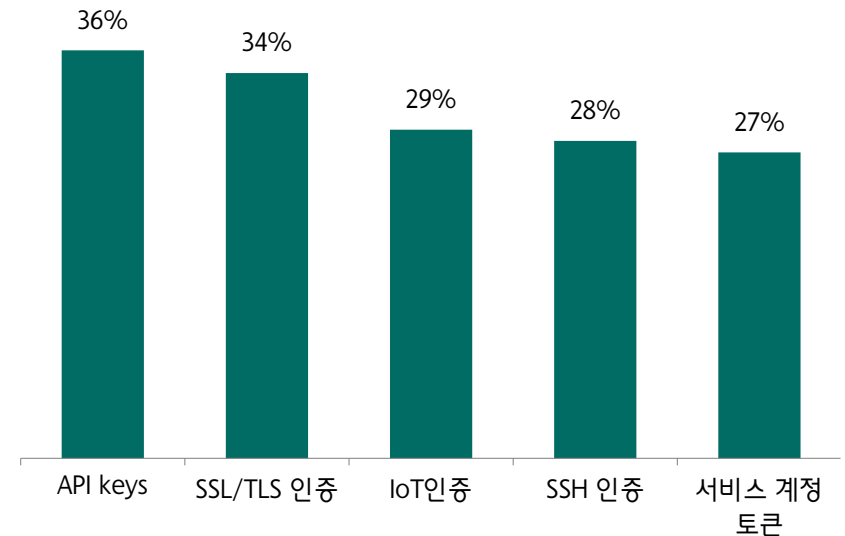
- ‘머신 아이덴티티’는 서버, IoT, 애플리케이션, 물리적/가상 장치의 인증과 통신에 필요한 보안 ID
- 클라우드 기반 기술 급증, AI 도입, 빠른 개발 주기에 따른 머신 인증 유효기간 단축으로 머신 ID 폭발적으로 증가.
- 사람 대비 머신 ID 비율이 25년 82배로 급증 후 26년에도 폭발적 증가 지속. 머신 ID 급증에 비례하여 머신 아이덴티티 보안 수요 부각
- AI 모델과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문 중 하나가 강력한 머신 아이덴티티 관리와 인증 및 인가 절차 포괄하는 보안 강화

### AI 도입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머신 아이덴티티 폭발적 증가



자료: 사이버아크, 하나증권

### 공격 위험도 높은 머신 아이덴티티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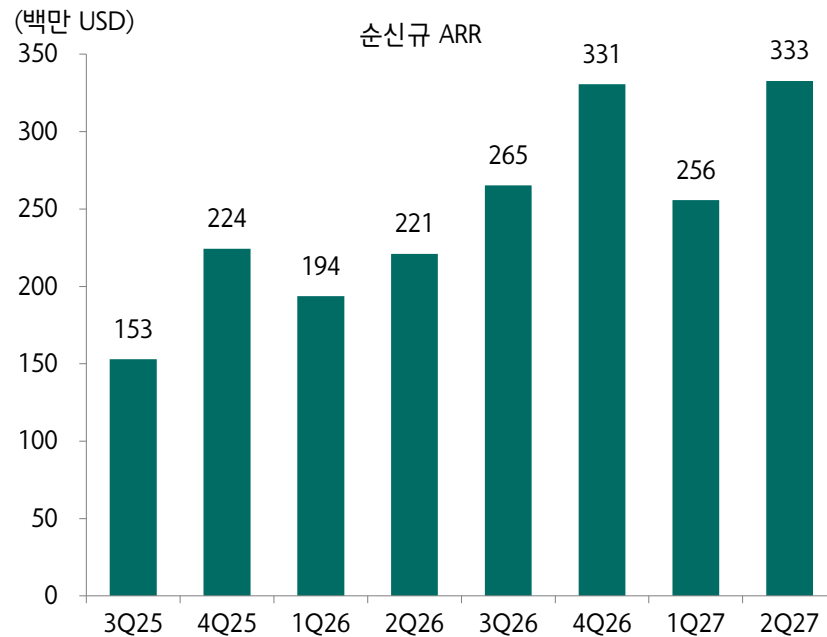


자료: 2026 State of Machine Identity Security Report, 하나증권

## AI 보안 수요, 내러티브에서 숫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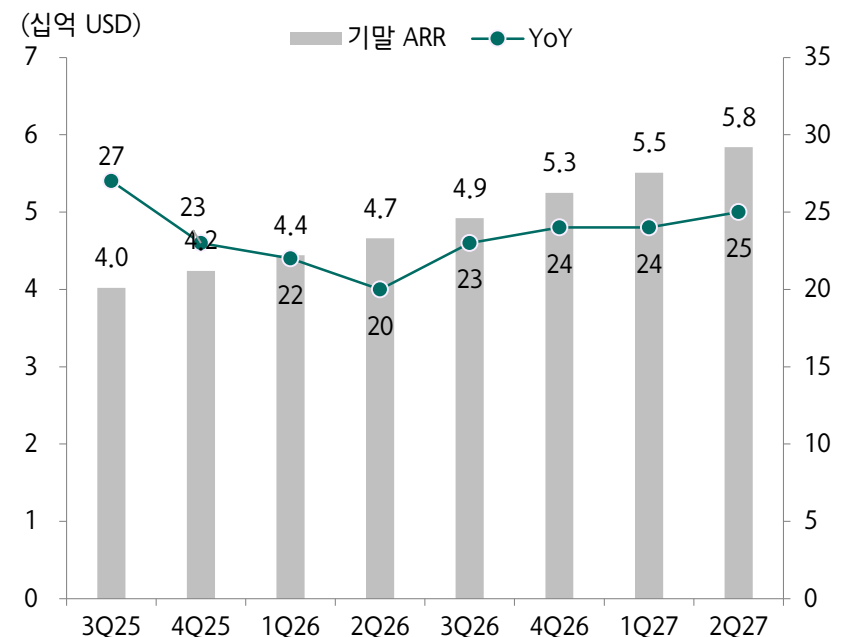
- 클라우드스트라이크 FY27년 2분기(7월결산) 실적은 ‘미토스 모멘트’ 이후 AI 보안 수요가 본격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 2분기 순신규 ARR 3.3억 달러(+51% yoy)로 가이드스 16% 상회, FY27년 연간 성장 가이드스 34%로 6.3ppt 상향 조정
- AIDR(AI 감지 & 대응) ARR 1분기 대비 3배 증가, AI 에이전트가 통제 벗어나는 문제 증가하면서 보안 강화 인식 빠르게 확산
- Flex 기반 ARR 101% 증가, 계약 내에서 여러 제품 추가할 수 있는 구독 모델 방식인 Flex는 통합 사업자로서 강점 가속화시키는 수단

클라우드스트라이크 순신규 ARR, 2분기 뚜렷한 상승 확인



주: 회계연도 (1월 결산) 기준  
자료: CRWD, 하나증권

클라우드스트라이크, 분기말 ARR 성장 가속화 지속



주: 회계연도 (1월 결산) 기준  
자료: CRWD, 하나증권

## 국가비상사태선언, 트럼프 1기와의 차이

- 8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외국산 전력장비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EO14420)
- 7월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전력 인버터를 커버리스트에 추가한데 이어 규제 대상을 확대. FCC 규제와 달리 소급 적용도 가능
- 트럼프는 2020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개한 적 있으나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효과없이 마무리

### 행정명령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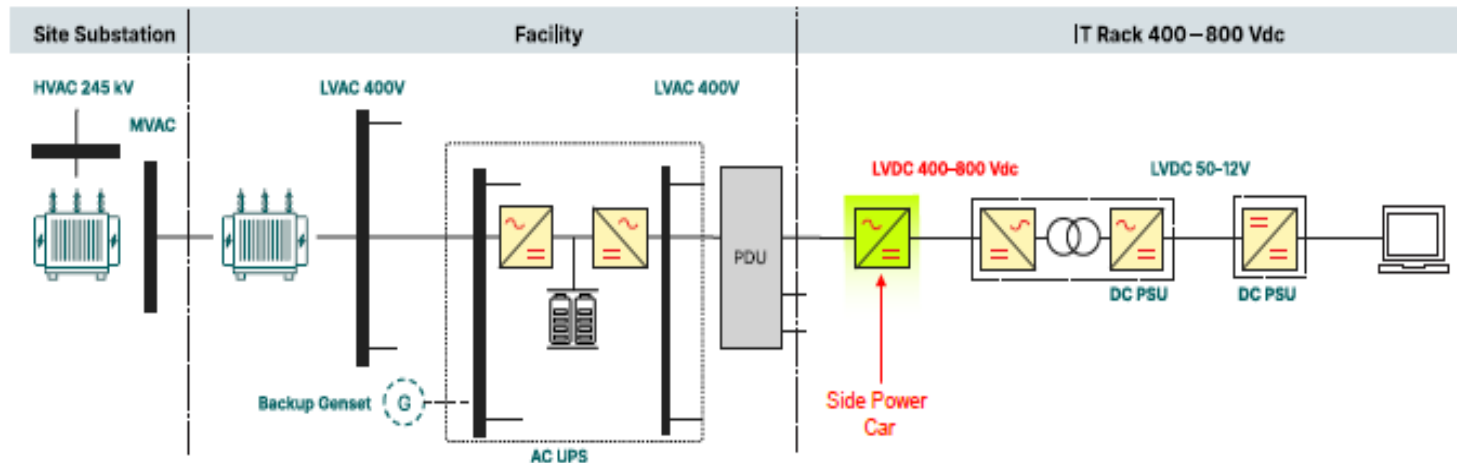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NEA), 미국법전 3편 301조                                                                                |
| 위협 요인    | 외국산 전력설비에 내장될 수 있는 디지털 백도어를 통한 원격 접근·조작 가능성, 국제무역 교란 시 공급망 붕괴 위험                                                            |
| 금지 대상 거래 | '적용대상 외국기업(Covered Foreign Entity)'이 소유·통제하거나 그 관할·지시를 받는 자가 설계·개발·제조·공급한 벌크전력시스템 설비(및 관련 소프트웨어·펌웨어·원격접속 기능 등)의 취득·수입·이전·설치 |
| 금지 판단 기준 | ① 사보타주·전복·무단접근·악의적 원격조작·공급중단의 부당한 위험<br>② 핵심 인프라·경제 안보에 대한 파국적 위험<br>③ 국가안보 또는 국민 안전에 대한 그 밖의 용인 불가 능한 위험                   |
| 적용 대상 설비 | 대형/소형/비상 발전기, 변전소 변압기, 전력망 연계 인버터, ESS, 고전압 차단기, 발전 터빈, 산업제어시스템(PLC 등), 계전기, 계측장비 등                                         |

자료:하나증권

## 직류 전환 과도기에는 사이드파워카에 주목

- SST는 하반기부터 시제품 출하 시작. 800V DC 인프라 전환은 Kyber 랙 도입되는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출하를 예상
- 다만 415V AC 레거시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800V DC 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
- 과도기에는 UPS, PDU 등 기존 교류 배전 장비 유지한 채 차세대 랙 옆에 Side Power Rack/Car(정류 역할)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

### 과도기에는 Side Power Car의 역할이 중요



자료: GE 버노바, 하나증권



## 중간선거의 주요 안건이 될 데이터센터

- 2025년 9월 네비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 GPU 제공 인프라 계약 체결했으며 왕복엔진을 연료전지로 대체하며 프로젝트 가시성이 유의미하게 증가. 대기오염 및 소음, 물 사용 관련 반발로 부지 배치 계획 수정안에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8:1로 승인
- 데이터센터 규제는 주와 연방에서 동시에 진행 중. 대규모 전력 사용자 송전 연결을 제외한 대부분(부지 선정, 인허가, 건설 등)은 연방(FERC)에서 담당

### 행정명령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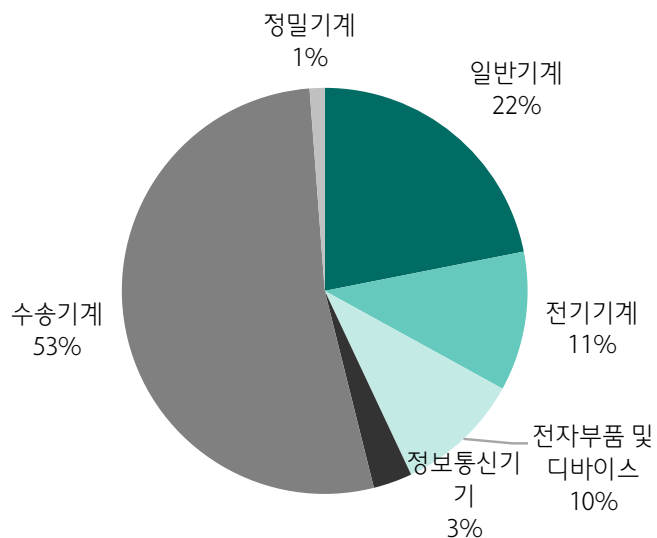
| 지역     | 규제                                 | 내용                                                                                                                                                                                                                                                                                                           |
|--------|------------------------------------|--------------------------------------------------------------------------------------------------------------------------------------------------------------------------------------------------------------------------------------------------------------------------------------------------------------|
| 텍사스    | ERCOT 가이드 개정 요청 (PGRR1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송전서비스제공자(transmission service provider)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검토 방식에서 벗어나, ERCOT이 주도하는 시스템 전체 단위의 일괄(batch) 연구 방식으로 전환</li> <li>- 신청자는 향후 6년간 몇 MW를 쓸 수 있는지 할당량을 통보 받고 이후 30일 안에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함</li> </ul>                                                                  |
| 뉴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MW급 이상 전력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최대 1년 유예</li> <li>- 유예 후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지역 사회에 투자 필요</li> <li>- 데이터센터만을 위한 별도의 전기, 수도요금 체계를 만들 계획</li> </ul>                                                                                                                                  |
| 미시간    | S.B. 1018, S.B. 1020 (2026.6.4 발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 1018, S.B. 1020을 같이 시행해 신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주요 승인 절차를 2027년 4월 1일까지 주 전역에 걸쳐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효과</li> <li>- S.B. 1018는 지방정부 및 환경 관련 인허가를 차단, 신규 데이터센터 운영을 금지</li> <li>- S.B. 1020은 같은 기간 미시간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회사와의 계약, 요금표, 할인, 요율 등을 승인하지 못하게 막아</li> </ul> |
| 유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센터 개발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우는 행정명령을 발표</li> <li>- 대형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물 공급, 대기질, 전기요금, 지역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대중의 우려가 커지는데에 대한 대응</li> </ul>                                                                                                                                |
| 펜실베이니아 | 행정명령 2026-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부 산하 기관에 주정부 인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데이터센터 산업 제안이 주지사의 책임 있는 인프라 개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li> <li>- 투기성, 무책임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추진을 차단</li> <l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NDA(비밀유지계약) 금지</li> </ul>                                                                                                     |

자료: 하나증권

## JMTBA(일본공작기계공업회), 연간 수주 전망치 2조엔으로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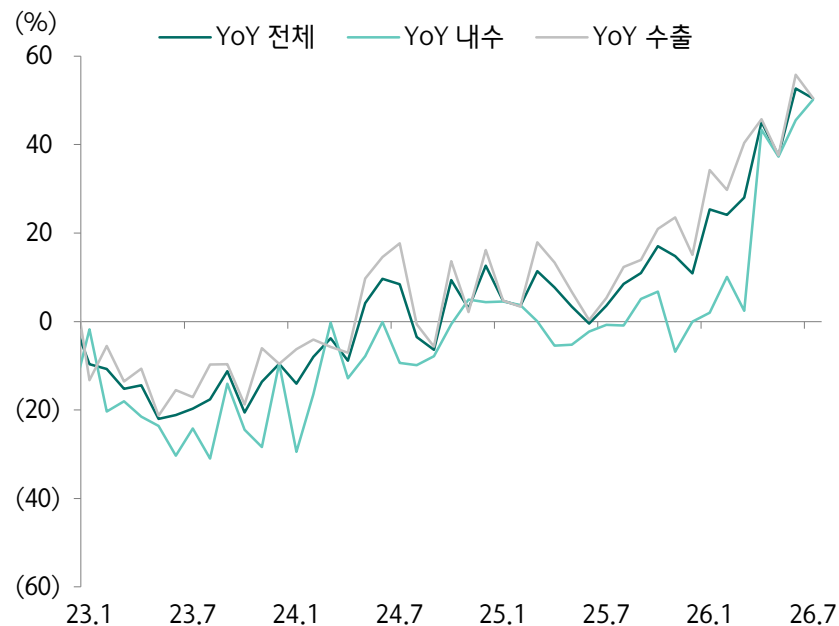
- 일본 공작기계는 생산액 기준 일반기계의 5.7%, 기계산업 전체에서는 1.2% 차지하지만 우수한 공작기계는 기계류 제조에 있어 핵심 요소로 생산비중 이상의 중요성을 가짐
- 일본 공작기계 7월 잠정 수주는 1,930억 엔(YoY +50.4%), 내수(+50.2%)와 수출(+50.3%) 수요가 모두 견고
- 중국에서 전기와 정밀기계 부문 수요로 +76% 급증했으며 북미에서도 인프라 지출과 대형 항공우주 수요로 +44%

### 일본 기계산업 세부 매출 비중



자료: JMTBA, 하나증권

### 일본 공작기계 수주 YoY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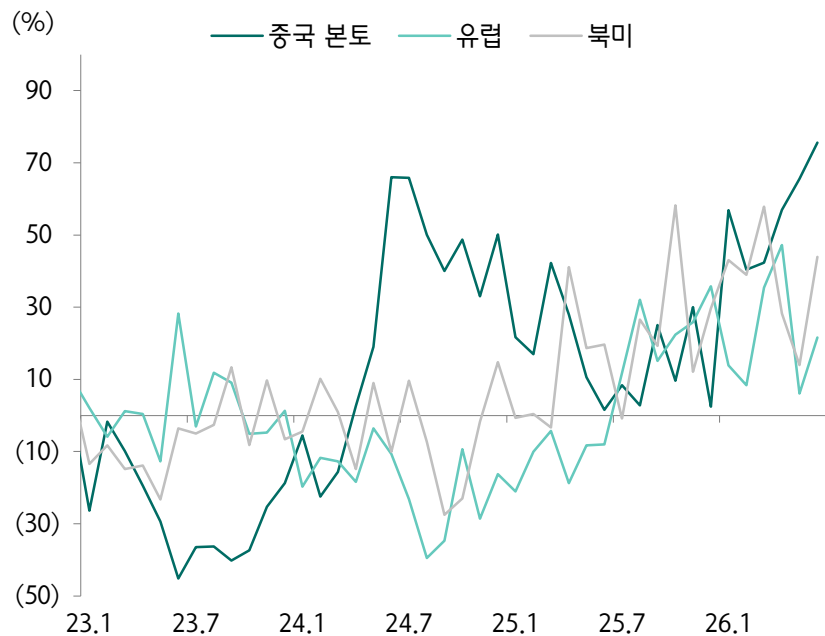


자료: JMTBA, 하나증권

## 일본 로봇 수출은 2025년부터 회복세를 이어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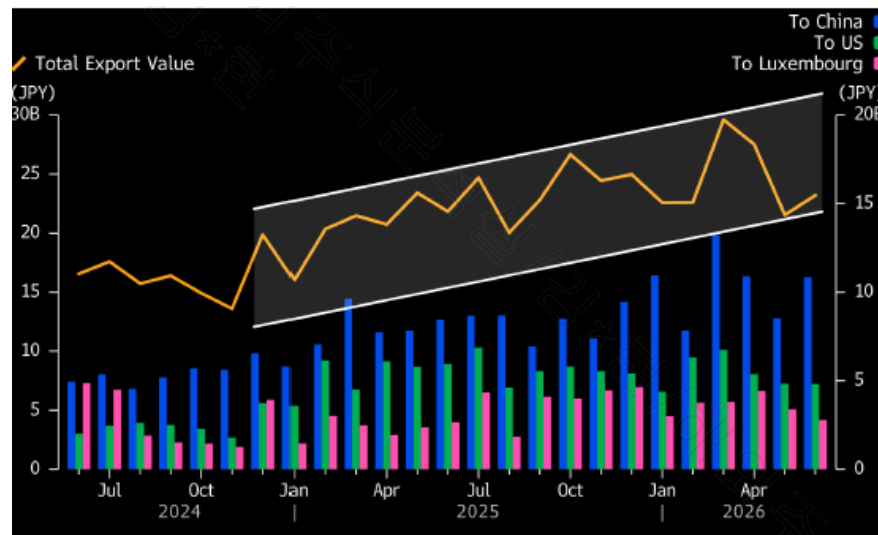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시설 설비투자로 일본 로봇 수출은 2025년 초부터 회복세를 이어가는 중
- '26년 6월 수출 YoY +6%, 물량 기준 +11%. 단가는 소형 로봇 비중이 높아지며 -4%. 기저효과로 단기적 금액 성장률은 제한될 것
- 중국은 2025년 일본 최대 로봇 수출 시장, 금액 기준 38%, 미국이 22%로 2위

### 일본 공작기계 수출 지역별 수주 성장률 추이



자료: JMTBA, 하나증권

### 일본 로봇 총 수출액과 주요 3국(중국, 미국, 룩셈부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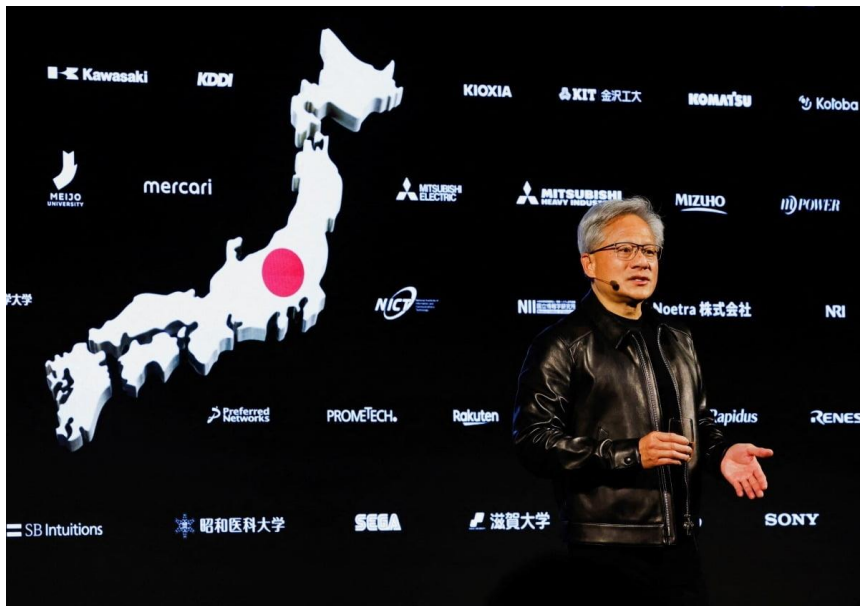


자료: 일본 통계청, Bloomberg, 하나증권

## 엔비디아와 일본 제조업은 피지컬 AI 협력을 중심으로 강화

- '26년 6월 엔비디아는 로봇이 현실세계를 이해하도록 학습시키는 AI 모델 개발을 위해 일본 기업과 협력 계획 공개
- 엔비디아의 생태계(코스모스, 아이작 등)에 일본의 핵심 산업을 결합하려는 전략

2026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일본 AI 생태계 리셉션



자료: 로이터, 하나증권

엔비디아와 일본 기업의 피지컬 AI 동맹

| 기업      | 역할                                                                                                                    |
|---------|-----------------------------------------------------------------------------------------------------------------------|
| 후지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지쯔 주도의 이니셔티브</li> <li>- 엔비디아가 AI 기술 기반을 제공하면 후지쯔는 CPU와 소프트웨어를 공급</li> </ul> |
| 화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픈 플랫폼 기반 AI 로봇으로 제조 현장 자동화를 확대</li> </ul>                                   |
| 가와사키중공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스케어, 요양 분야에서 로봇틱스와 AI를 결합한 병원 솔루션 구현</li> </ul>                             |
| 야스카와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 AI 로봇과 오픈 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공장 적용을 넓히는 역할</li> </ul>                           |

자료: 하나증권

## NVIDIA Corporation(NVDA.US):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의 기회

- 낮은 밸류에이션 12M FWD PER 23.8배(5년 평균 41.6배, 2년 평균 34.2배) 매력
- 공급 기반의 명확한 실적 가시성 제시: FY 2028 YoY +70% 이상
-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데이터센터 확장 및 지역사회 반대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외부 자금 조달 필요. AI 인프라 금융의 역할 중요성 증대

###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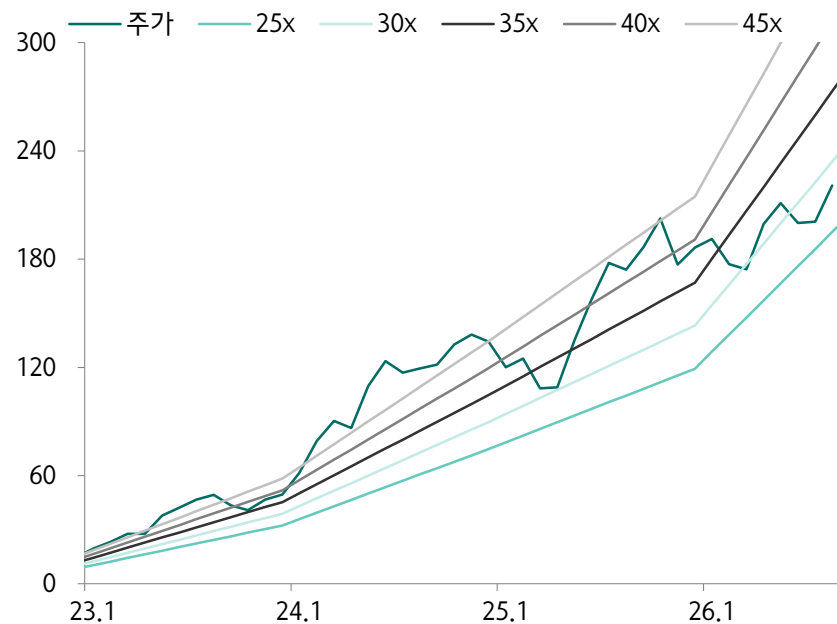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투자지표        | 2025    | 2026    | 2027F   | 2028F   |
|-------------|---------|---------|---------|---------|
| 매출액         | 130,497 | 215,938 | 408,186 | 682,639 |
| 영업이익        | 86,788  | 137,299 | 267,651 | 450,229 |
| 순이익         | 74,265  | 116,997 | 225,983 | 377,963 |
| EPS(USD)    | 2.99    | 4.77    | 9.26    | 15.58   |
| EPS(YoY, %) | 130.7   | 59.5    | 94.2    | 68.2    |
| ROE         | 93.1    | 73.9    | 73.4    | 69.0    |
| PER         | 40.2    | 40.1    | 23.8    | 14.2    |
| PBR         | 37.4    | 29.6    | 17.5    | 9.8     |
| DPS(USD)    | 0.03    | 0.04    | 0.71    | 0.94    |

주: 회계연도 1월 결산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ER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Alphabet Inc.(GOOGL.US/GOOG.US): AI 생태계 확장

- 9월 1일부터 Google Ads AI MAX 자동 전환: 광고 타게팅/소재 자동화. 광고 ROI 상승. 광고주의 지출 확대
- TPU 8t / TPU 8i 상용화: 하반기 8세대 TPU 상용화 예정. 추론 비용을 낮춰 컴퓨트 사용 확대. TPU 8i는 구글 자체 서비스 (제미나이, AI 오버뷰, AI 모드)의 비용 절감해 검색 및 제미나이 서비스의 수익성 개선. 구글 클라우드 고객 수요 증대 효과

###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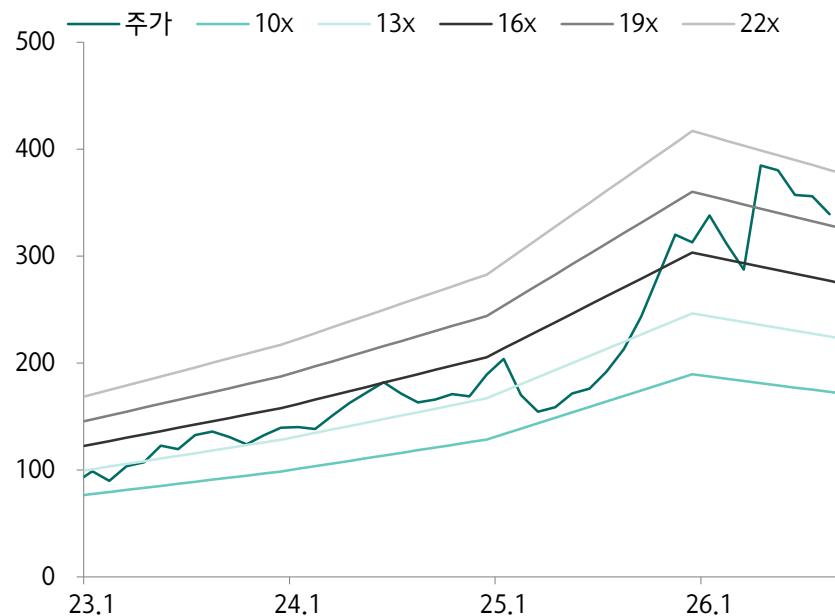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투자지표        | 2024    | 2025    | 2026F   | 2027F   |
|-------------|---------|---------|---------|---------|
| 매출액         | 350,018 | 402,836 | 497,660 | 612,331 |
| 영업이익        | 112,390 | 129,039 | 171,602 | 217,405 |
| 순이익         | 100,118 | 134,260 | 217,453 | 203,847 |
| EPS(USD)    | 8.04    | 10.81   | 20.57   | 15.10   |
| EPS(YoY, %) | 38.6    | 34.5    | 90.3    | (26.6)  |
| ROE         | 30.5    | 31.7    | 35.2    | 20.3    |
| PER         | 23.5    | 29.0    | 16.5    | 22.5    |
| PBR         | 7.2     | 9.2     | 5.8     | 4.6     |
| DPS(USD)    | 0.60    | 0.83    | 0.80    | 0.90    |

주: 회계연도 12월 결산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ER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RTX Corp.(RTX.US): 미사일 수요 및 민간항공기 업황 회복 수혜

- RTX는 전 세계 국방비 확대 움직임과 민항기 수요 회복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기업
- FY 2025 기준 매출 중 약 30.8% 비중을 차지하는 Raytheon 사업부(방산)는 미사일 보충 및 골든돔 프로젝트의 직접 수혜
- RTX는 전 세계 3대 엔진 기업인 Pratt&Whitney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 민항기 수요회복 시 엔진 및 MRO 매출에 긍정적
- MRO 사업부는 이익이 좋다는 점에서 수익성에도 긍정적

###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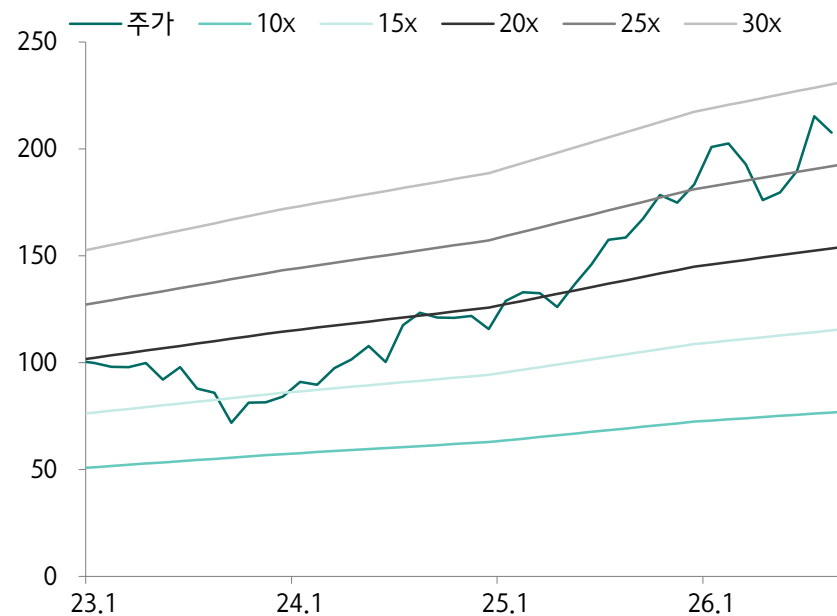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투자지표        | 2024   | 2025   | 2026F  | 2027F   |
|-------------|--------|--------|--------|---------|
| 매출액         | 80,738 | 88,603 | 96,205 | 103,364 |
| 영업이익        | 10,183 | 11,389 | 12,815 | 14,067  |
| 순이익         | 7,705  | 8,531  | 9,877  | 10,816  |
| EPS(USD)    | 5.73   | 6.29   | 7.25   | 7.91    |
| EPS(YoY, %) | 13.2   | 9.8    | 15.2   | 9.1     |
| ROE         | 12.8   | 12.9   | 14.3   | 15.0    |
| PER         | 20.2   | 29.2   | 28.7   | 26.3    |
| PBR         | 2.6    | 3.8    | 4.1    | 3.9     |
| DPS(USD)    | 2.48   | 2.67   | 2.86   | 3.09    |

주: 회계연도 12월 결산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ER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E-ROCK.(EROC.US): 천연가스 기반 온사이트 기업

- 천연가스 기반의 모듈형 발전설비를 활용. 데이터센터 등에 신속한 온사이트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 전원 인프라 기업
- 앤트로픽 수주 470MW 규모 포함 약 17억 달러 규모 확보. 엔진 생산설비는 2027~2028년 초까지 완판된 상황
- 초반엔 데이터센터 Brid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GRID 연결 후엔 백업 전원으로 활용 가능
- 주요 고객으로 메타(엘 파소 366MW), 마이크로소프트(63MW), 위스트론(10MW), 월마트(450MW) 등을 확보

### Financial Data

(단위: 백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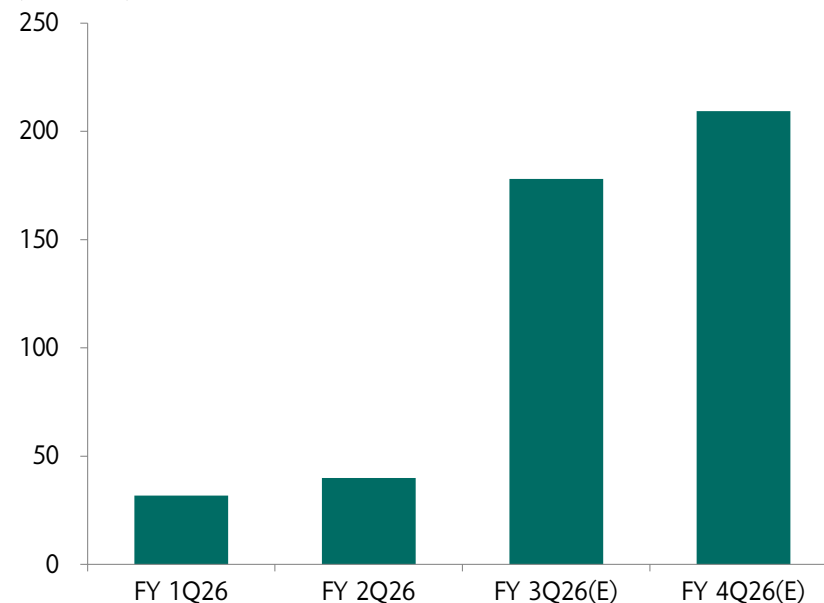
| 투자지표        | FY 1Q26 | FY 2Q26 | FY 3Q26(E) | FY 4Q26(E) |
|-------------|---------|---------|------------|------------|
| 매출액         | 31.7    | 39.9    | 178.1      | 209.3      |
| 영업이익        | -16.0   | -20.0   | 1.5        | 8.7        |
| 순이익         | -18.0   | -68.0   | -4.4       | 6.6        |
| EPS(USD)    | 0.00    | -0.06   | -0.01      | 0.03       |
| EPS(YoY, %) | 195.1   | 69.6    | -230.1     | 149.4      |
| ROE         | -       | -       | -          | -54.5      |
| PER         | -       | -       | -          | -          |
| PBR         | -       | -       | -          | 11.9       |
| DPS(USD)    | 0.00    | 0.00    | 0.00       | 0.00       |

주: 회계연도 12월 결산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분기별 매출액 추이

(백만 USD)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ipher Digital Inc.(CIFR.US): DC 전력 선점의 기회

- 기존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의 대규모 전력과 부지를 활용해 전력이 확보된 데이터센터 용량을 임대해주는 기업
- 희소한 전력 접근권을 확보한 기업: 데이터센터의 Grid 연결 지연이 길어질수록 기존 전력 접근권의 희소가치 상승
- 2027년 가동을 위한 수주 모멘텀: AI 고객들이 2027년 3Q~4Q 데이터센터(Reveille, Ulysses 등) 가동 요구할 경우 12~16개월 공기 감안하면 4분기 수주 가능성 존재

###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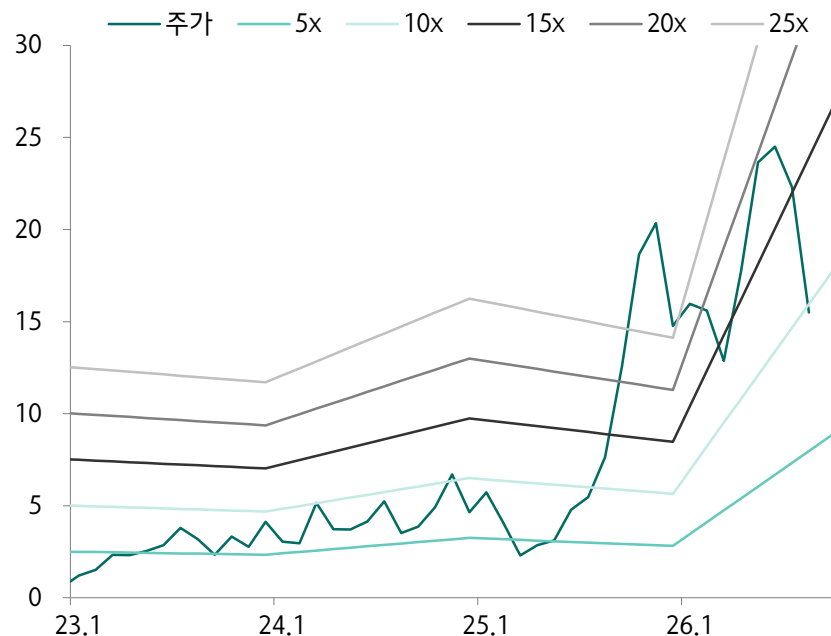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투자지표        | 2024   | 2025   | 2026F   | 2027F   |
|-------------|--------|--------|---------|---------|
| 매출액         | 151    | 224    | 215     | 801     |
| 영업이익        | (44)   | (422)  | (265)   | 141     |
| 순이익         | 107    | 22     | (236)   | 134     |
| EPS(USD)    | (0.14) | (2.15) | (1.31)  | (0.27)  |
| EPS(YoY, %) | 40.0   | 1435.7 | (39.1)  | (79.1)  |
| ROE         | (7.1)  | (99.0) | (165.0) | (126.4) |
| PER         | -      | -      | -       | -       |
| PBR         | 2.4    | 6.8    | 19.5    | 71.8    |
| DPS(USD)    | 0.00   | 0.00   | 0.00    | 0.00    |

주: 회계연도 12월 결산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SR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팔로알토(PANW.US): AI는 사이버보안의 구조적 성장 촉매

- 트래픽 폭증은 네트워크 보안 수요 급증 요인, AI 머신 위협 증가는 XSIAM 기반 자동화 방어 필요성 증대
- AI 에이전트 가동 본격화는 아이덴티티 보안 성장 요인이며 아이덴티티 대표 업체 사이버아크 인수 후 내부 목표 초과 달성
- AI 가동을 위한 보안 수요 증대와 기업의 보안 벤더 통합 추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팔로알토
- 8월까지 주가 급등으로 실적 발표 후 일시적 차익실현 가능성 높으나 사이버보안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 진입

###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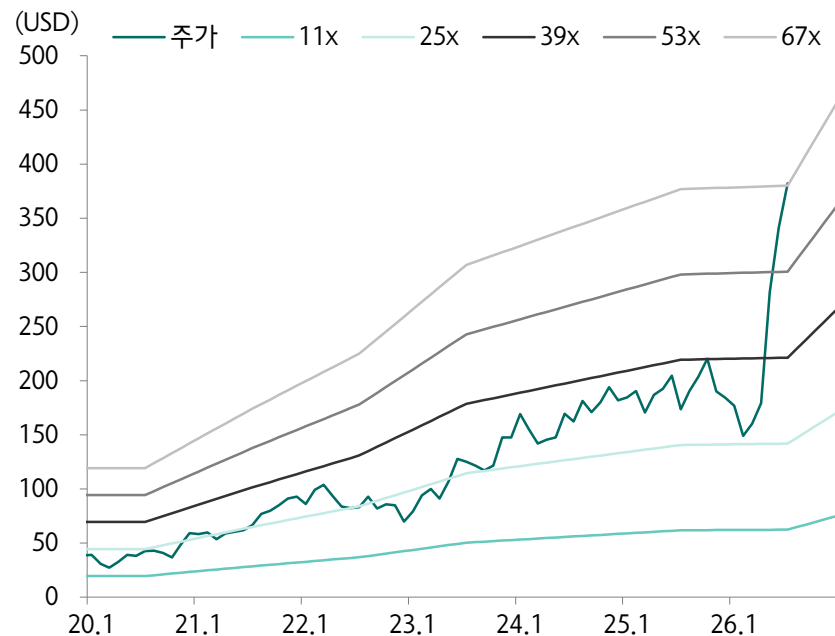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투자지표        | 2024  | 2025  | 2026F  | 2027F  |
|-------------|-------|-------|--------|--------|
| 매출액         | 8,028 | 9,222 | 11,420 | 13,799 |
| 영업이익        | 2,190 | 2,652 | 3,321  | 4,088  |
| 순이익         | 1,948 | 2,345 | 2,888  | 3,415  |
| EPS(USD)    | 2.84  | 3.34  | 3.78   | 4.08   |
| EPS(YoY, %) | 27.7  | 17.8  | 13.2   | 7.8    |
| ROE         | 56.3  | 36.1  | 16     | 11.6   |
| PER         | 130.8 | 111.3 | 98.3   | 91.1   |
| PBR         | 20.4  | 14.8  | 10.0   | 9.3    |
| DPS(USD)    | 0.0   | 0.0   | 0.0    | 0.0    |

주: 회계연도 7월 결산

자료: LSE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CR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클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하반기 계약 전환 본격화로 추가적인 상향 조정 전망

- FY27년 순신규 ARR 연간 가이드스 첫 제시 후 2개 분기 만에 11.5ppt 상향조정. 하반기에 파이프라인의 계약 전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FY27년 가이드스 대비 업사이드 여전히 높다고 판단
- CY26년보다 CY27년에 더욱 본격화될 AI 에이전트 보안 수요, 2) AI 보안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제품에 대한 기업 지출 증가, 3) 소수 통합 사업자에 대한 프리미엄 확대에 주목. 단기간의 가파른 주가 급등에 따른 일시적 차익실현 가능성 높으나 소수의 보안 통합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더욱 높아질 것

###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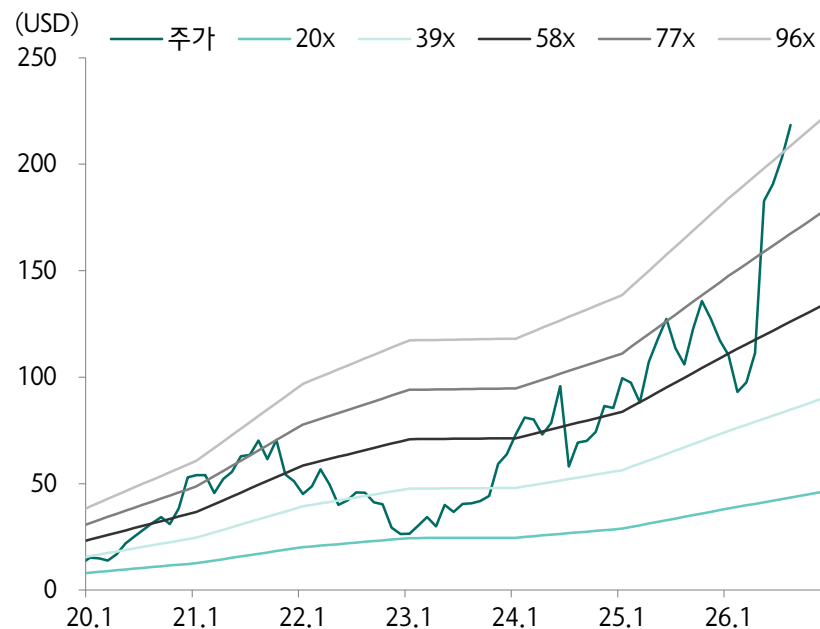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투자지표        | 2025  | 2026  | 2027F | 2028F |
|-------------|-------|-------|-------|-------|
| 매출액         | 3,954 | 4,812 | 6,001 | 7,314 |
| 영업이익        | 838   | 1,046 | 1,503 | 1,928 |
| 순이익         | 988   | 957   | 1,307 | 1,660 |
| EPS(USD)    | 0.98  | 0.93  | 1.25  | 1.58  |
| EPS(YoY, %) | 27.2  | -5.1  | 34    | 26.2  |
| ROE         | 35.4  | 24.8  | 25.8  | 26.4  |
| PER         | 222.9 | 234.8 | 174.7 | 138.2 |
| PBR         | 29.7  | 25    | 39.4  | 32    |
| DPS(USD)    | 0.0   | 0.0   | 0.0   | 0.0   |

주: 회계연도 1월 결산

자료: LSE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CR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이턴코퍼레이션(ETN.US): 데이터센터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

- 1분기에서 2분기 전환하며 역대 가장 큰 분기별 생산 출력 확대. 미국 캐파 증설 효과로 Organic 기준 +18%
- 전력 부문 수요는 데이터센터 뿐 아니라 상업/기관, 유틸리티, 산업 수요가 모두 견고
- 개별적인 가격 인상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인상 효과 증가할 전망
- DC 차단기와 냉각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800V DC 통합 솔루션 패키지 판매에 유리

###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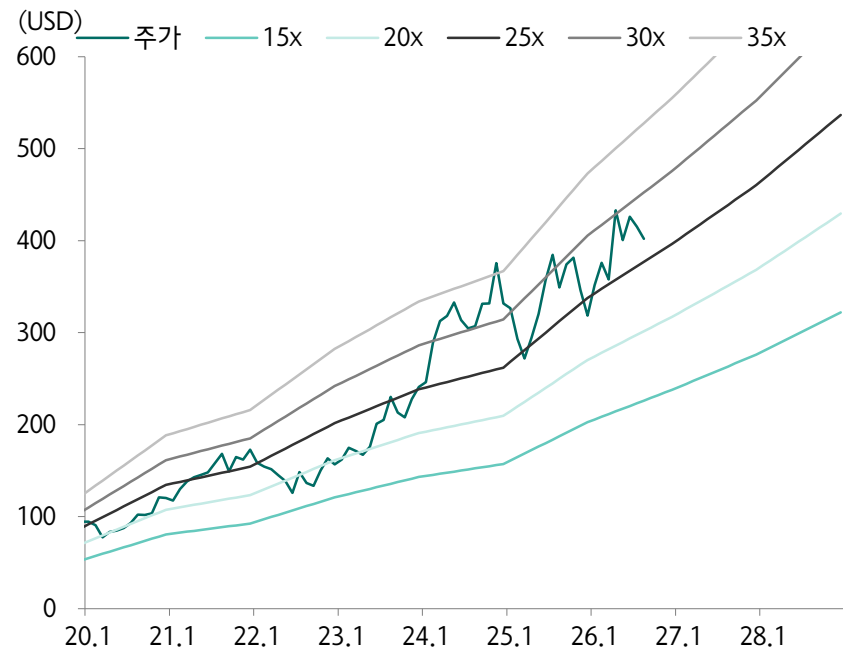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투자지표        | 2024   | 2025   | 2026F  | 2027F  |
|-------------|--------|--------|--------|--------|
| 매출액         | 27,448 | 27,448 | 32,696 | 36,233 |
| 영업이익        | 5,209  | 5,209  | 6,370  | 7,428  |
| 순이익         | 4,087  | 4,087  | 4,326  | 5,600  |
| EPS(USD)    | 12.1   | 11.5   | 13.5   | 15.9   |
| EPS(YoY, %) | 0.0    | (5.1)  | 18.0   | 17.4   |
| ROE         | 19.7   | 19.7   | 23.4   | 24.9   |
| PER         | 33.3   | 27.8   | 29.7   | 25.3   |
| PBR         | 7.1    | 6.4    | 7.2    | 6.3    |
| 배당률         | 1.1    | 1.3    | 1.1    | 1.2    |

주: 회계연도 12월 결산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ER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버티브(VRT.US): 사이드파워카는 직류 전환 과도기의 핵심

- 수요 둔화, 프로젝트 취소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연 매출 반영해 FY2026년 연간 이연스 상향조정
-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800V DC 로드맵에 맞춰 2026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출시 예정. 중앙집중식 정류기, DC 버스웨이, 랙 단위 DC-DC 변환기를 포함. 특히 DC-DC 변환기는 과도기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프리미엄 부여 합리적

###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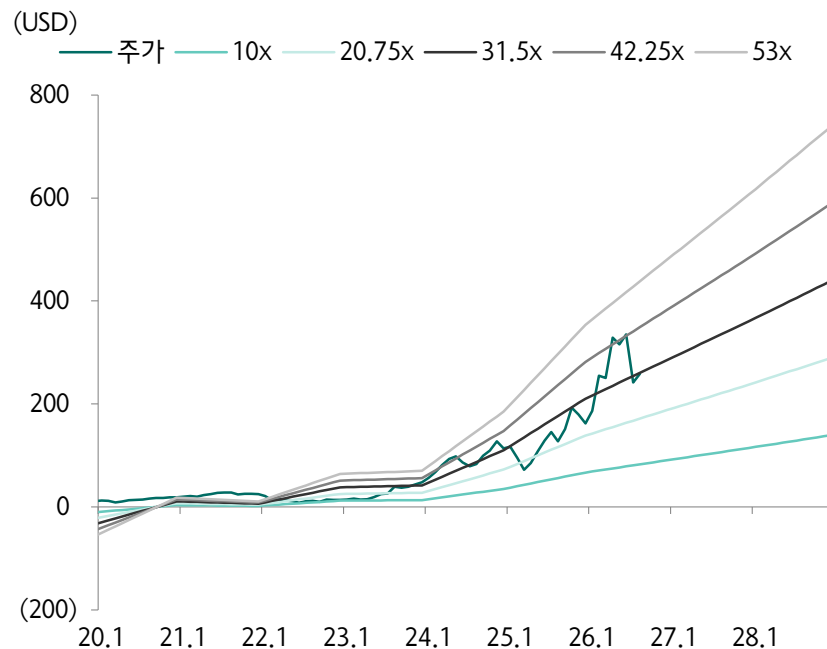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투자지표        | 2024   | 2025   | 2026F  | 2027F  |
|-------------|--------|--------|--------|--------|
| 매출액         | 10,230 | 10,230 | 14,017 | 18,167 |
| 영업이익        | 1,830  | 1,830  | 3,290  | 4,583  |
| 순이익         | 1,333  | 1,333  | 2,360  | 3,322  |
| EPS(USD)    | 4.2    | 3.7    | 6.7    | 9.1    |
| EPS(YoY, %) | 0.0    | (12.7) | 81.9   | 35.8   |
| ROE         | 43.9   | 43.9   | 49.4   | 47.4   |
| PER         | 87.7   | 44.2   | 38.8   | 28.6   |
| PBR         | 17.8   | 15.7   | 16.6   | 11.5   |
| 배당률(%)      | 0.1    | 0.1    | 0.1    | 0.1    |

주: 회계연도 12월 결산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ER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화낙(6954.JP): 자동화 주문 회복과 피지컬 AI 모멘텀

- 엔비디아는 10년 전부터 로봇 생산성을 위해 화낙과 협력을 발표, 2025년부터 AI 구동 로봇 개발을 위해 협력 본격화. 2026년 7월부터는 일본 국가 차원의 코스모스 연합 참여로 이어져
- FA 주문은 4QFY25부터 회복 시작, 중국에서 데이터센터와 AI 서버용 반도체, 휴머노이드 부품이 수요를 견인
- 일부 부품 납기 길어지며 수주와 매출간 격차 발생, 납기 정상화 과정

### Financial Data

(단위: 백만 J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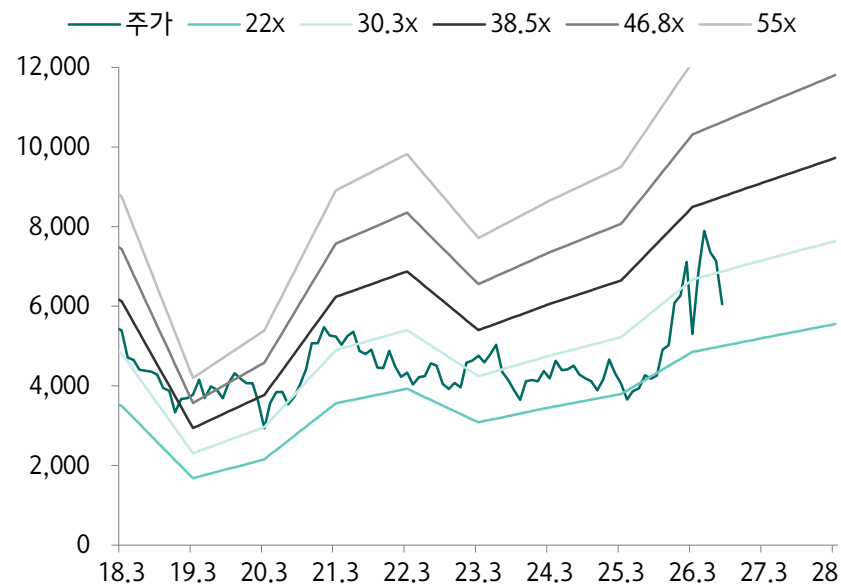
| 투자지표        | 2025    | 2026    | 2027F   | 2028F     |
|-------------|---------|---------|---------|-----------|
| 매출액         | 857,831 | 857,831 | 967,896 | 1,032,541 |
| 영업이익        | 183,763 | 183,763 | 228,070 | 249,152   |
| 순이익         | 166,543 | 166,543 | 204,618 | 219,639   |
| EPS(USD)    | N/A     | 180.2   | 220.6   | 236.7     |
| EPS(YoY, %) | N/A     | N/A     | 22.4    | 7.3       |
| ROE         | 10.0    | 10.0    | 10.7    | 11.4      |
| PER         | 25.8    | 29.7    | 27.3    | 25.5      |
| PBR         | 2.2     | 2.7     | 2.9     | 2.8       |
| DPS(USD)    | 2.3     | 2.0     | 2.2     | 2.4       |

주: 회계연도 3월 결산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 12M FWD PER 추이

(JPY)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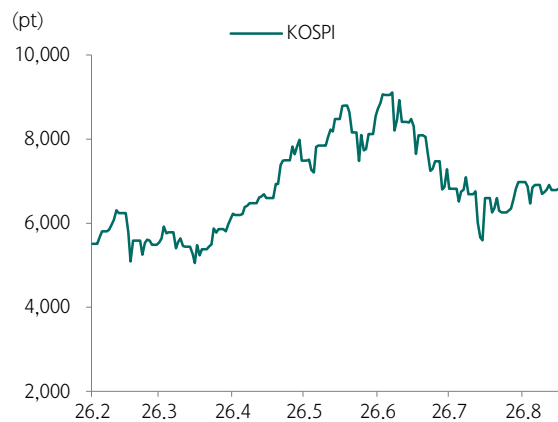
## 8월 주요 뉴스 리뷰

## 8월 주요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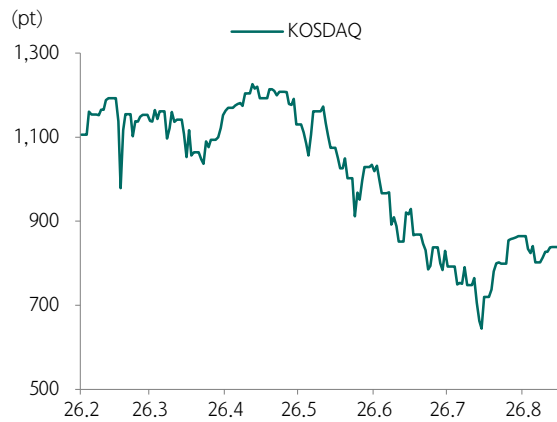
| 날짜   |                                                                                                                                                     |
|------|-----------------------------------------------------------------------------------------------------------------------------------------------------|
| 8/4  | 미 행정부, 중국산 데이터센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 추진<br>-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 법안 연내 공포 목표. 글로벌 점유율 1위 중지이노라이트가 최대 피해 예상되며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대체 공급사 전환 불가피                         |
| 8/10 | 애플, 메모리 공급난에 中 창신메모리 칩 적용 시험...백악관 승인 희망<br>- 애플이 중국 판매 일부 제품에 CXMT 메모리칩 적용을 검토하며 초기 공급 협의 진행 중.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CXMT를 인민해방군 지원 기업으로 등재한 상태            |
| 8/11 | 엔비디아, 블랙록·블랙스톤 등 월가 6개사와 5,000억 달러 AI 자본 풀 조성<br>- 엔비디아가 월가 6개사와 MOU 체결, 5,0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자본 풀 조성. 자금은 엔비디아 고객사에 매력적인 금리로 제공해 GPU 기반 생태계 확산이 목적  |
| 8/14 | 샌디스크, 2030년까지 연간 매출 10%대 중후반 성장 전망<br>- 샌디스크가 투자자의 날에서 연간 매출 성장을 10%대 중후반을 전망, 하이퍼스케일러 포함 8개사와 평균 4년 장기 계약 체결. 주가 13.7% 급등                          |
| 8/16 | 엔비디아, 오픈AI 데이터센터 금융 보증 절반 축소<br>- 엔비디아가 오픈AI 오하이오 데이터센터에 대한 금융 보증액을 2,5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미만으로 재조정. '순환 거래' 구조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의식한 조치                   |
| 8/18 | 테슬라, 이달 오스틴서 사이버캡 출시 준비...직원 탑승부터 시작<br>- 테슬라가 이달 중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직원 대상 탑승 서비스로 출시 후 로보택시 서비스에 편입할 계획. 6월부터 공도 시험 주행을 시작한 바 있음                        |
| 8/20 | 구글, 마벨과 AI 반도체 동맹. 최대 17조원 신주인수권 취득<br>- 구글이 마벨과 맞춤형 AI 반도체 계약을 체결, 121억 달러 규모 신주인수권 취득. 기존 브로드컴 의존에서 공급처 다변화 나서는 것으로 해석                            |
| 8/24 | 엔비디아 AI 서버 가격 15% 이상 인상 예고...메모리 품귀가 주요인<br>- 대형 서버 공급업체들이 내년 초 출하분부터 15% 이상 가격 인상 통보. D램 공급이 AI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메모리 가격 급등한 것이 핵심 배경                   |
| 8/26 | 오픈AI, 자체 추론 칩 '할라피뇨' 성능 공개...엔비디아 GB300 대비 처리량·속도 우위<br>- 오픈AI가 브로드컴과 개발한 추론 칩 '할라피뇨'가 엔비디아 GB300 대비 전력 단위당 처리량 및 응답 속도에서 우위를 기록,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투입 예정 |
| 8/26 | 트럼프, 美 전력망에 국가비상사태 선포<br>-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전력망 장비 구매, 수입, 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한 조치로 분석되며 변압기, 배터리 등이 적용 범위에 포함                             |

##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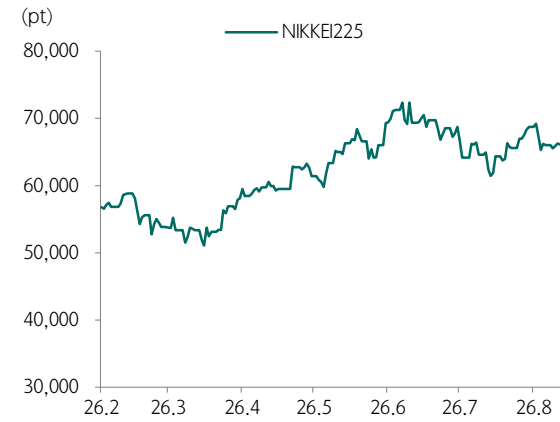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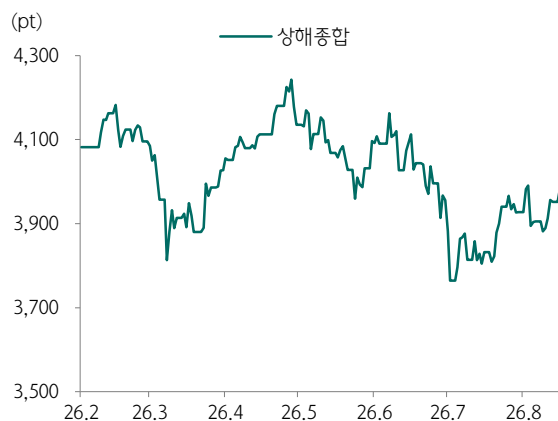
코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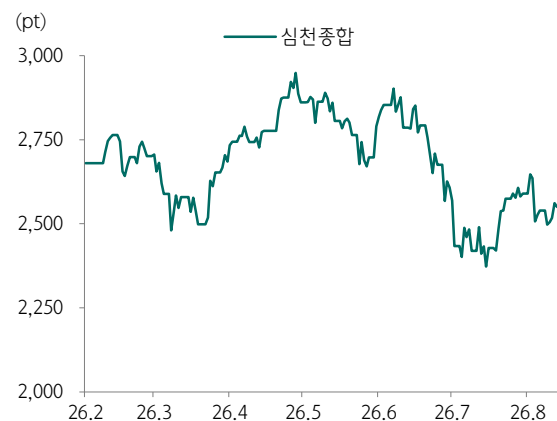
니케이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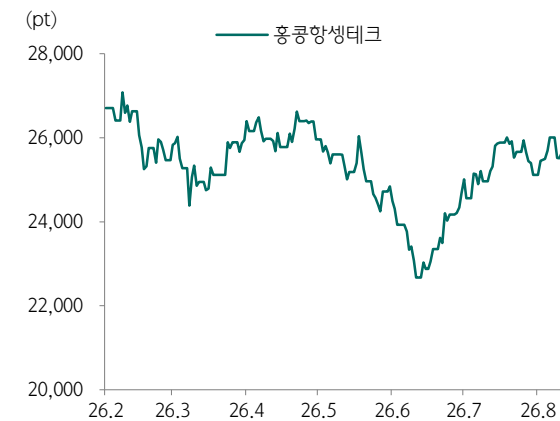
상해종합



심천종합



항생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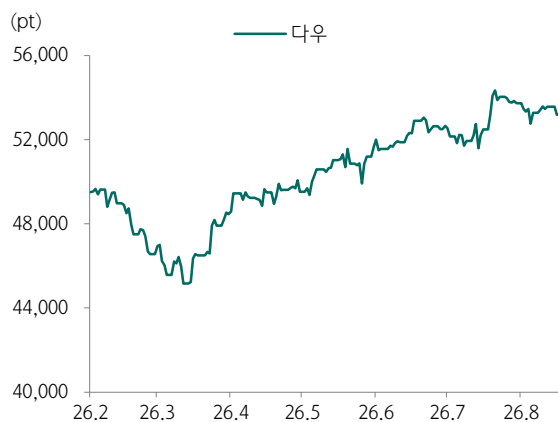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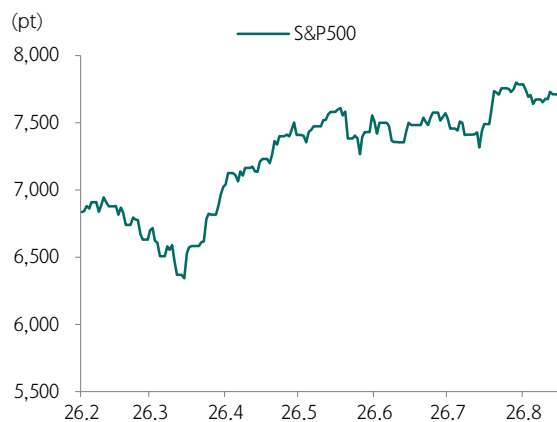


##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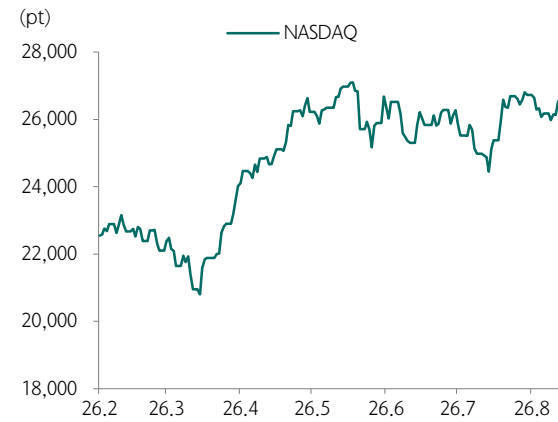
다우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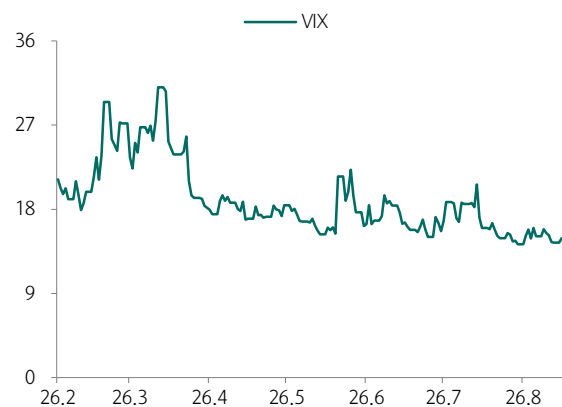
S&amp;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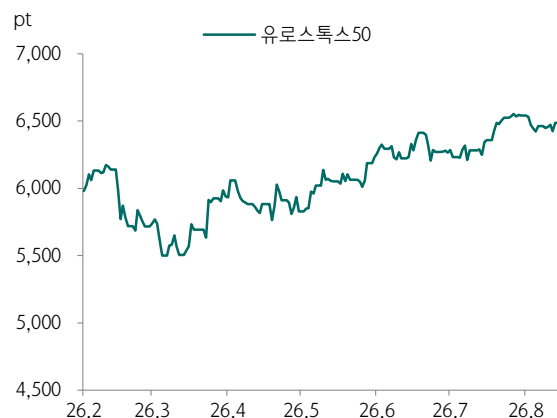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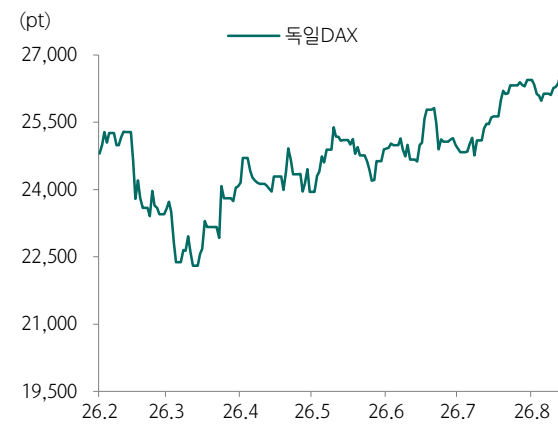
VIX



유로스톡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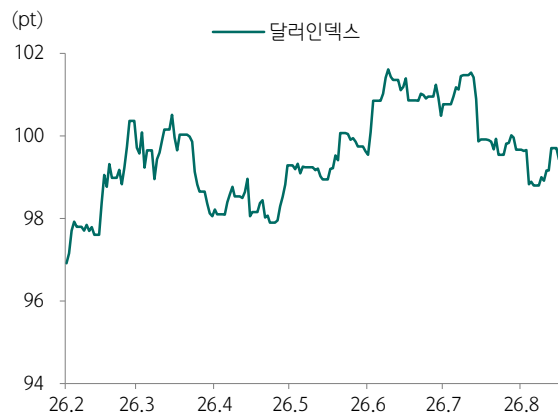
독일 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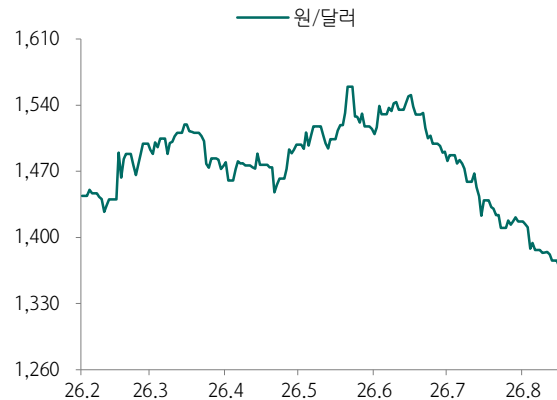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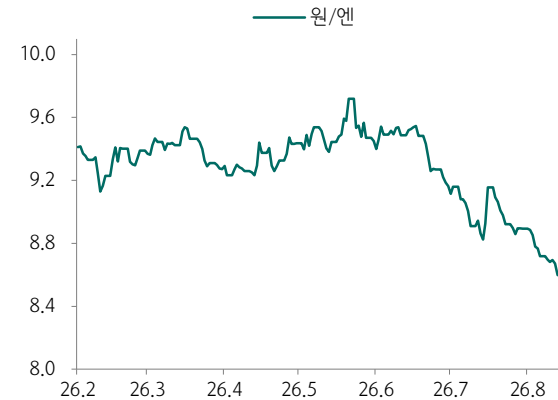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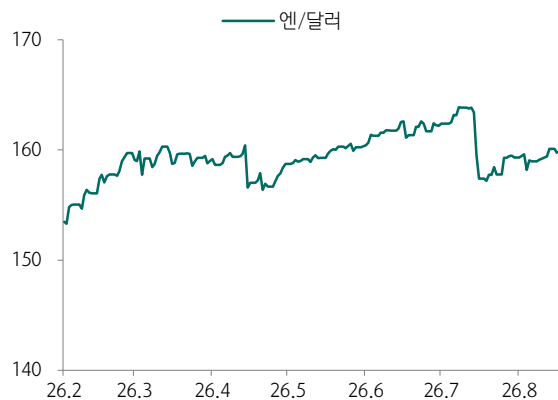
원/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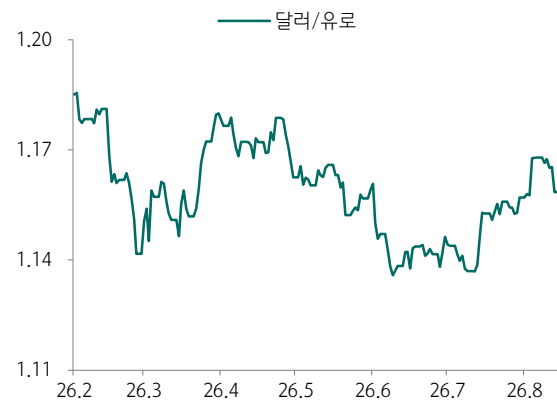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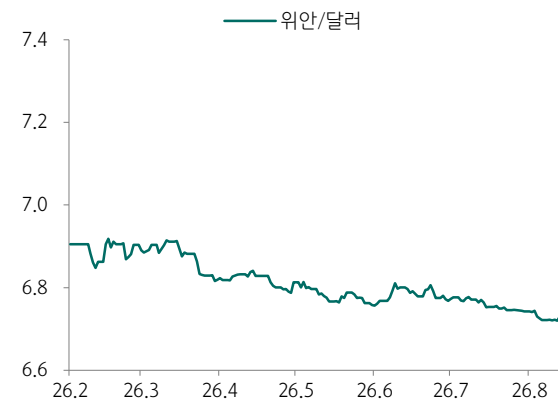
엔/달러



달러/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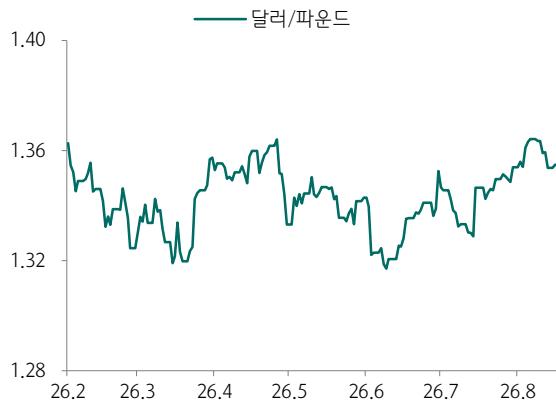
위안/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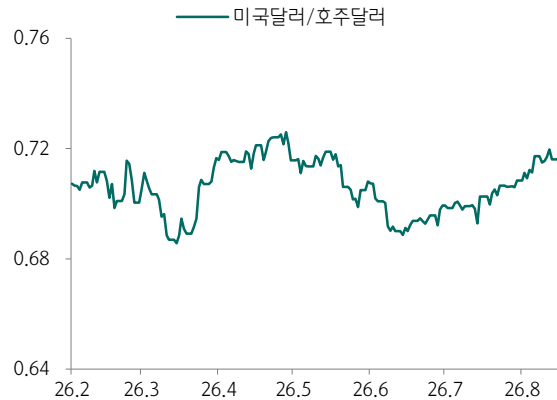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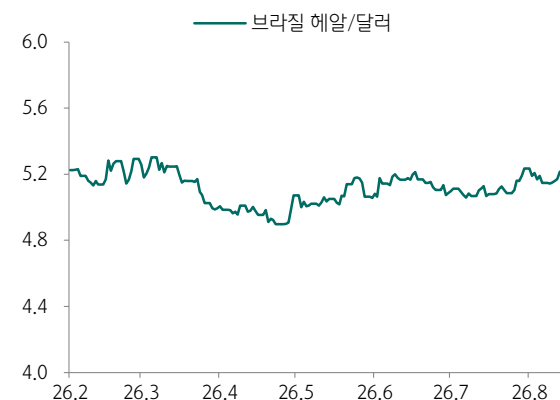
달러/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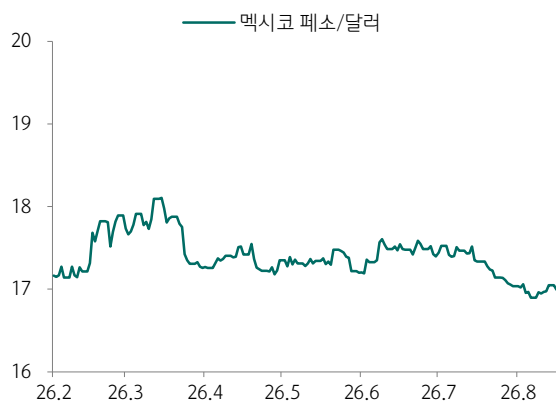
미국 달러/호주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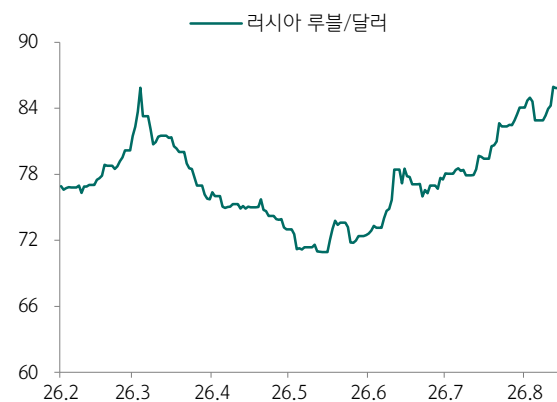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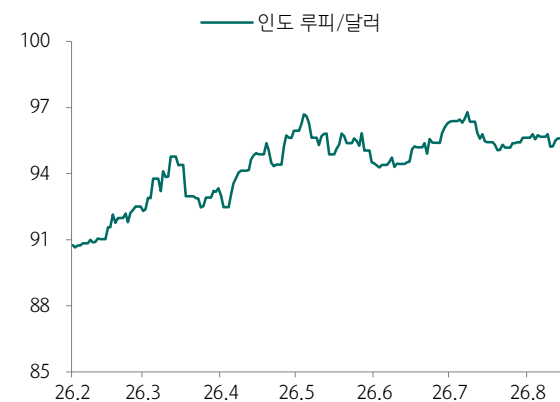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러시아 루블/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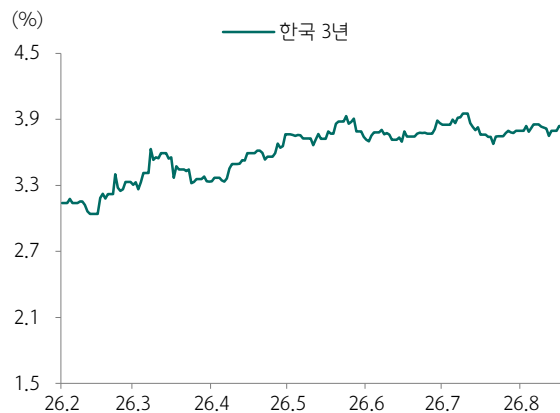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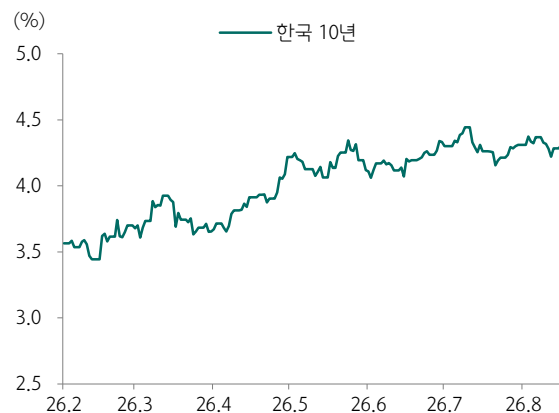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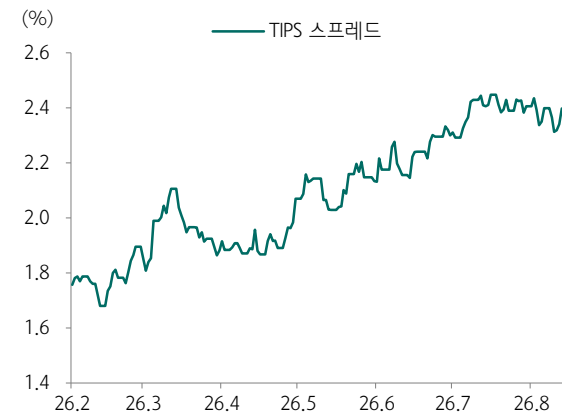
### 한국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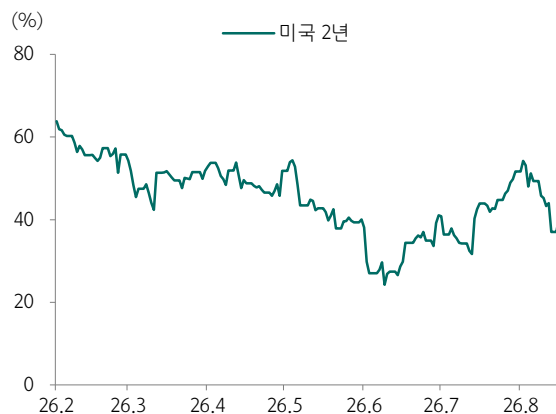
### 한국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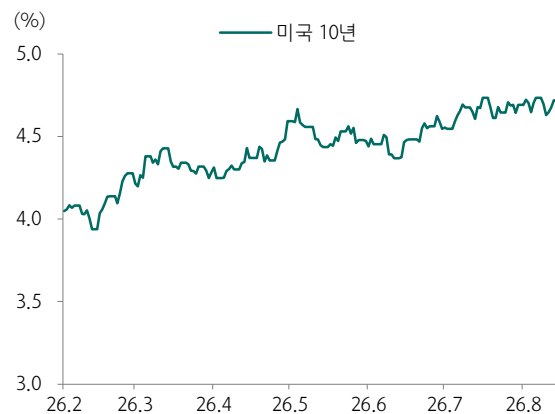
### TIPS 스프레드



### 미국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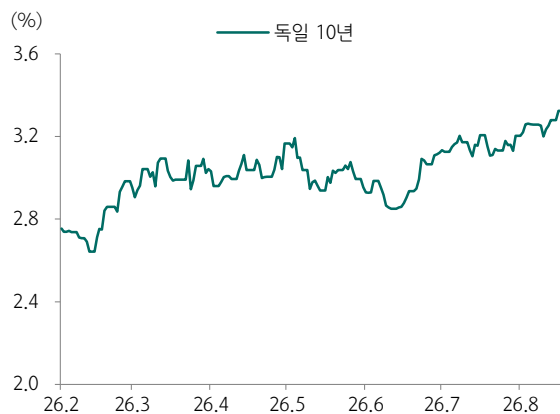
### 미국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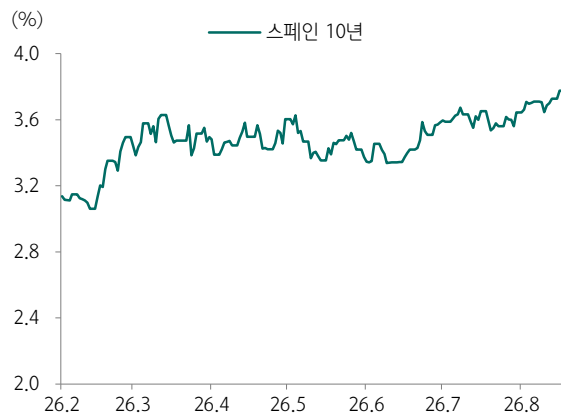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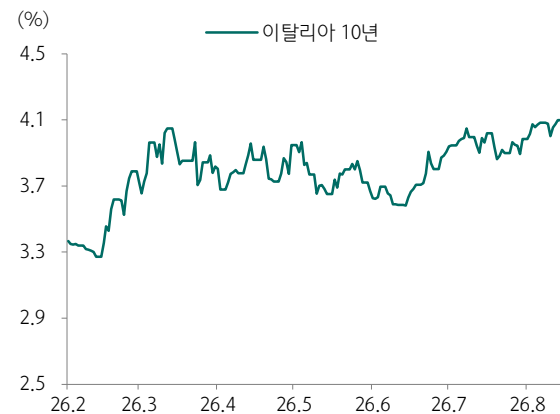
독일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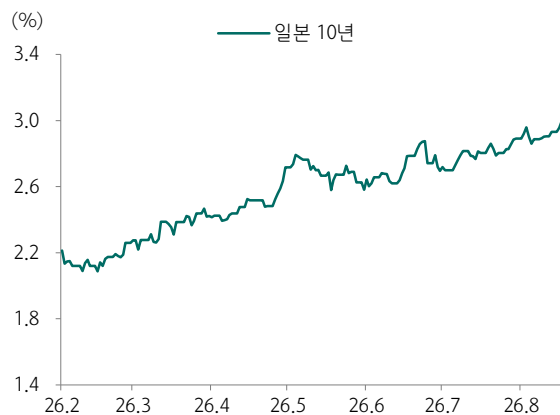
스페인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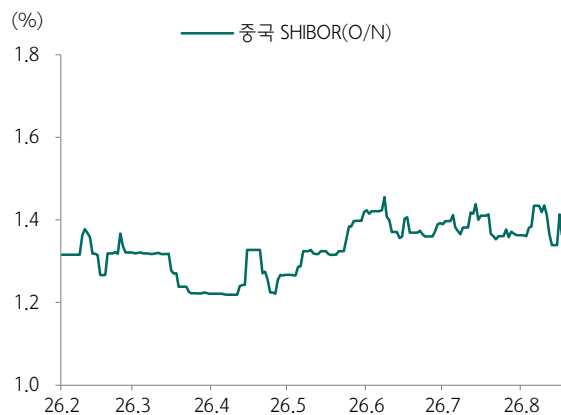
이탈리아 10년



일본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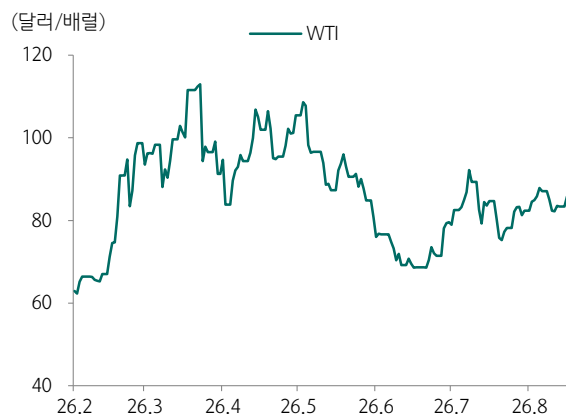
중국 SHIBOR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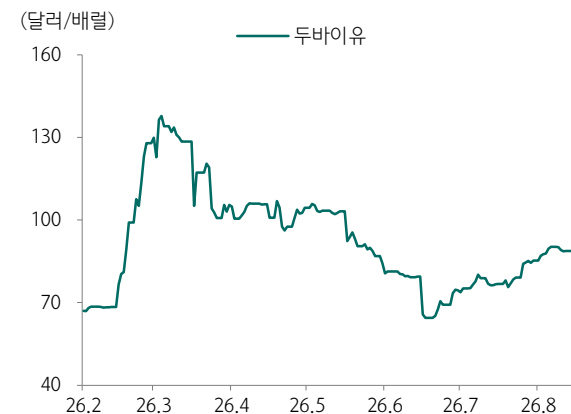
W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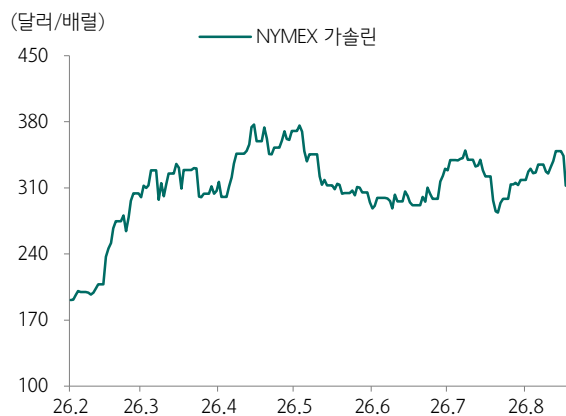
브렌트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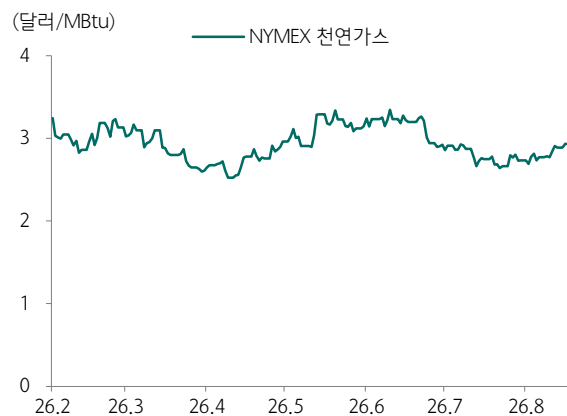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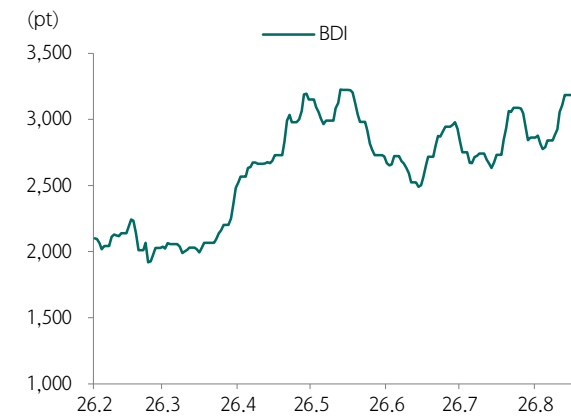
NYMEX 가솔린



NYMEX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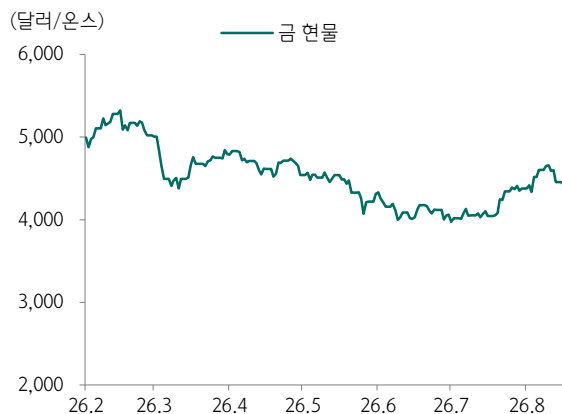
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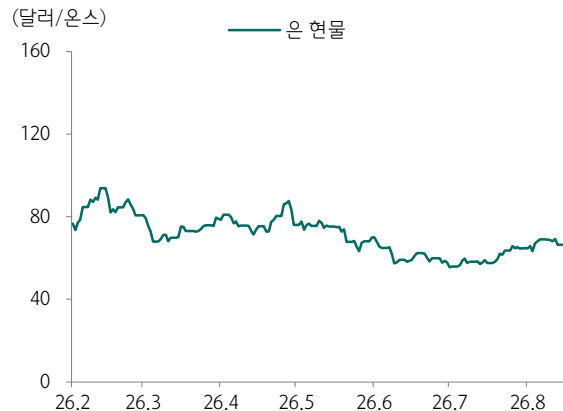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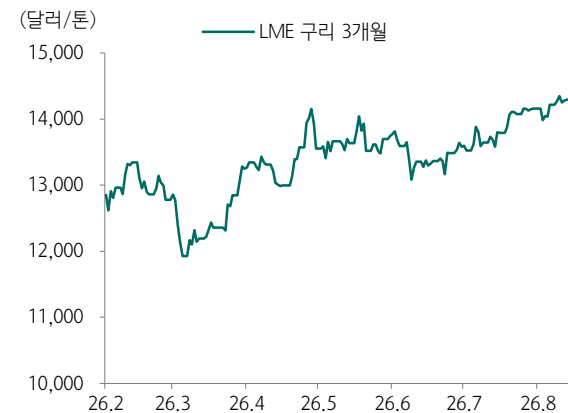
금 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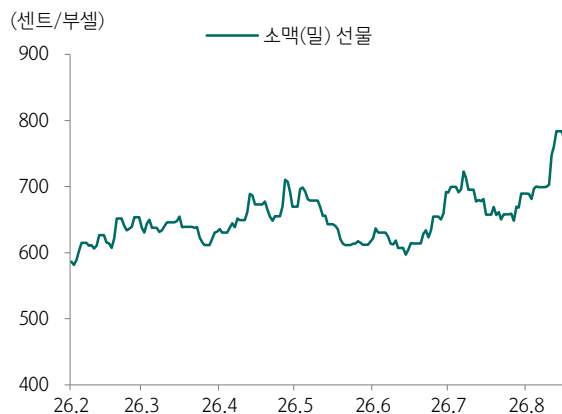
은 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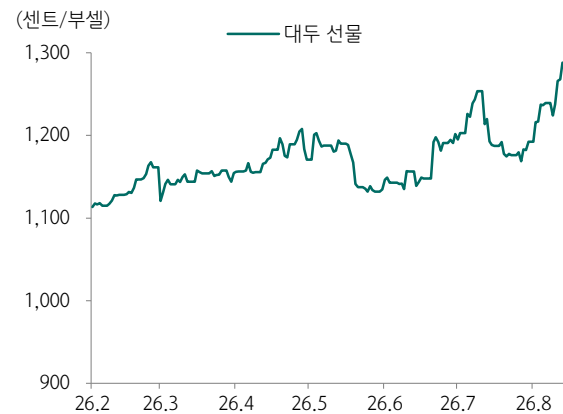
LME 구리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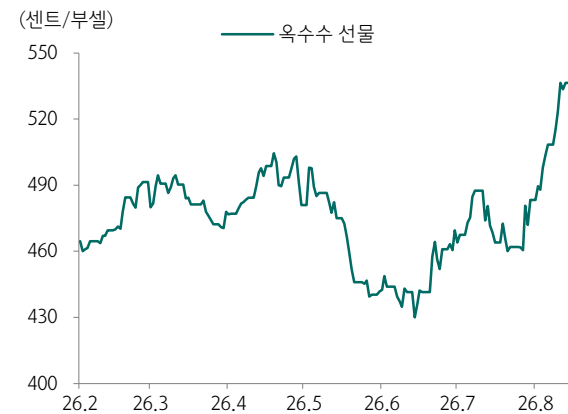
소맥(밀)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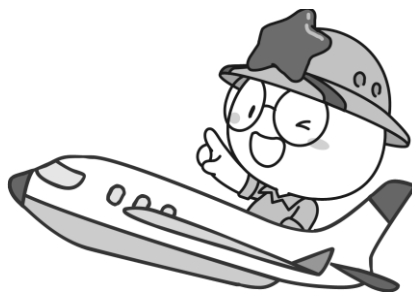
대두 선물



옥수수 선물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